

2013 제49호



속기계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표지설명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로 국회
회의록 표지가 한글로 바뀌
었습니다.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제49호 속기록 표지부터
한글로 바꿨습니다.

CONTENTS

2013 속기계 제49호

- 04 **머리말**
역사를 기록하는 현장에서 - 이철우
- 06 **인사말**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속기인이 됩시다 - 손재옥
- 08 **2012 인터스테노**
제49차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의 및 IPRS 회의 참가 보고 - 국제부
제49차 인터스테노 회의 참가 스케치 - 정명순
- 38 **연구논문**
정보소외계층의 회의록 접근성 강화 - 국회의정기록과 연구논문팀
- 54 **다시 보는 속기문화**
대한속기협회의 탄생 - 김진기
- 58 **기자수첩**
속기사의 눈으로 본 임시의정원 - 이정운 기자
- 68 **세미나**
속기인을 위한 화합의 장, 제20회 속기학술세미나! - 이태범
- 74 **새의자**
속기는 나의 인생 - 한기수
- 78 **새내기 인사**
대기만성을 꿈꾸며 - 박우찬
마부위침(磨斧爲針)하니 나에게도 이런 날이!! - 예산해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 김진주
- 90 **회원동산**
이제는 아름다운 국악예술인으로 살려 합니다 - 이승희
속기사로서 나를 말하다 - 신태현
국회의정기록과 송별회 스케치 - 이한경
- 104 **협회 동정**
제46회 정기총회
협회 임원 및 기구표
- 106 **편집후기**

역사를 기록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대한속기협회 회장을 맡게 된 경북 김천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철우입니다.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속기협회는 1955년 대한속기학술협회로 설립되어 1966년 대한속기협회로 재창립된 이래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속기문화의 보급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며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와 땀으로 이룩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층 더 높은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수광은 지붕유설에서 “재상은 사람을 수십 년 정도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사관은 사람을 천년 뒤에까지 내세울 수도 있고 아주 침몰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의 중요성과 힘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기를 한다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사관들이 만들어 낸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도서관 20평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엄청난 분량의 기록이지만 21세기 디지털



역사를 기록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뛰겠습니다.

털 기록 매체의 탄생으로 이제는 디스크 몇 장이면 이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PC의 시대가 열리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IT 문화는 현재 스마트폰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외국인 친구들과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손 안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속기인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록의 변화에 대비하여 정보기술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록역사에 대한 학습과 연구 역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기인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나라 속기문화가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록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와 분야에서 곳곳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한속기협회 제10대 회장으로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 철 우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속기인이 됩시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제10대 대한속기협회 이사장직을 맡게 된 손재옥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 많은 조직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저희 속기인들도 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대한속기협회 이사장직을 수락하면서 준비되지 못한 두려움, 떨리는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협회 회장으로 추대되신 이철우 회장님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힘을 얻고, 또 협회 고문님과 지도위원님 부회장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속기인들의 구심체인 협회를 위해서 봉사해 보겠다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기분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양업종이 아닐까 우려할 정도로 침체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의회뿐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 자막방송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날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속기방식 이외의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 기록문화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2012년 인터스테노 참가 시 2016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한국 개최 제의를 받을 만큼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제활동에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회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또 자격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있는 속기자격증 발급과 제반업무를 대한속기협회로 이관함으로써 속기에 관한 교육에서부터 자격증 발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려 합니다. 이 작업은 대한속기협회의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협회 발전기금 조성에도 힘을 모아 조성 당시의 목적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속기인들의 정보 공유와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많은 격려도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주십시오.

대한속기협회가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순조롭게 이루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장 손 재 옥

2012 INTERSTENO 중앙위원회의 및 IPRS 회의 참가보고

국 제 부

기 간 : 2012년 9월 25일(화)~10월 3일(수)

장 소 :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 경유

한국대표 : 정명순(의정기록과 서기관)

정순화(협회 홍보이사)

김학순(의정기록과 주무관)

이승철(협회 고문)

서광식(경남도의회 의사담당관)



참가국 및 참가인원

14개국 76명 참가 (한국, 오스트리아, 중국, 벨기에, 체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미국, 캐나다 등)(IPRS 43명, 중앙위원회 30명, 경기심사위원회 7명, 이사회 8명 참가. 중복참가자 있음)

참가목적

- 기록문화와 속기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발전방안 강구
- 각국 의회의 속기 방식 및 회의록 발간 정보 교류 및 현안사항 논의
- 우리나라의 속기 및 속기사 양성 체계의 홍보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선진국 의회 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및 INTERSTENO 대의원회의 · IPRS 일정

일 자	장 소	일 정
9월 26일(수)	부다페스트	헝가리 경유
9월 27일(목)	빈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9월 28일(금)	빈, 프라하	오스트리아 경유
9월 29일(토)	프라하	인터스테노 참가등록 IPRS 1차 미팅 중앙위 1차 세션
9월 30일(일)	프라하	IPRS 2차 미팅 중앙위 2차 세션 중앙위 3차 세션 인터스테노 125주년 기념만찬
10월 1일(월)	프라하	체코 의회 방문 중앙위 4차 세션
10월 2일(화)	프라하	보헤미아 유리공장 방문
10월 3일(수)	프라하	체코 출발

1.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9월 27일)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겸 주 비엔나국제기구대표부 이종후 공사의 안내로 그리스 신전을 모델로 1883년에 건립한 오스트리아 의사당 참관. 상원·하원 회의장과 제국회의 회의장을 참관함.

오스트리아는 9개 주가 연합한 연방공화국으로서 의원내각제 국가임.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임기 5년)은 183석, 상원(임기 5~6년)은 62석으로 구성되고 있음. 2008년 9월 총선 결과 하원은 사민당 57석, 국민당 51석, 자유당 34석, 미래연합 21석, 녹색당 20석으로 사민당과 국민당의 대연정 정부가 국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0년 4월에 하인츠 피셔 대통령(임기 6년)이 재선되었음.



오스트리아 의회

휴회 중이어서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속기담당 직원들과 미팅은 할 수 없었음.

2. 인터스테노 이사회(9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인터스테노 이사회가 비공개로 개최되었음. 한국은 이사회 멤버가 아니므로 옵서버로도 참석하지 못했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2인, 감사, 경기심사위원장, 과학위원장, 교육위원장, IPRS 책임자 등 총 8인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회장 겸 이사장은 이탈리아의 Fausto Ramondelli이며, 대부분 유럽국가인들이 이사회에 교육위원장 Simon Sun Hulmin이 중국인으로서 유일한 동양인이었음. 동 이사회의 이사장이자 회장인 Ramondelli의 회장 보고서를 참고해서 의제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제들이 논의된 듯함.

가. 벨기에의 겐트에서 열리는 2013년 인터스테노 총회 준비와 관련하여 조직위원회의 활동을 점검 및 격려하고, 회원국들의 참여에 대한 독려.

나. 미국의 NCRA(법원속기사협회), 미국의 NVRA(음성인식 속기사협회), 인터스테노의 IPRS, 아르헨티나 속기사협회, 크로아티아 속기사협회, e-Parliament(전자의회) 등 유사 관련단체들과의 관계 증진 실적 보고.

다. 인터스테노의 홍보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웹사이트와 전단지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라. 인터스테노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써 10년 된 인터넷 경기대회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마. 인터스테노의 이익에 합치되는 지역 과제를 지원하는 방안 강구.

바. 마케팅과 행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유급직원을 두는 방안 강구.

3. 인터스테노 경기심사위원회(9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 국제경기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개최되었음. 이 심사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들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경기대회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바, 국제경기심사위원회의 관련 자료를 보면 주제 제안자가 7명인 것으로 보아 최소한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인 것으로 판단됨. 이들이 공표한 논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음.

가. 2013년 인터넷 경기대회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경기대회 날짜와 기간에 관한 것, 새 자격증의 레이아웃과 PDF 파일로 자격증을 국가별, 학교별로 전달하고 이를 프린트할 용지를 공급하는 것, 경기용 시험원고는 가능한 한 2월 15일 이전에 각 대표들에 의해 발송될 것, 연령별 구분을 위한 생일기준 변경과 분당 180자를 150자로 낮추자는 제안에 대한 논의 등 경기규정에 관련된 사항들 등.

나. 2013년 겐트 총회 시 경기용 시험원고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RT(real time) 실시간 속기 경기의 기준언어로 영어가 적합한가 하는 문제, 시험용 원고 번역 제출시한 결정에 대한 것,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문제 등.

다. 경기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승자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와 2등과 3등도 인증서와 메달을 시상식에서 함께 주자는 문제, 경기대회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국가회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등록신청은 접수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 중국어 번문 작성 시 오자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자는 의견, 보통 키보드 사용자들 중에 약어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별도의 범주를 적용하자는 의견, 실시간(RT) 속기경기 시 챔피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검토시간 8분을 주는 것은 너무 길다는 의견, 연설 기록하기 경기(SC)의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 연계경기에서의 메달과 인증서를 주는 문제 등.

- 라. 연설 기록하기 경기(SC) 참가 속기사들은 경기 하루 전날 시험 원고보다 긴 원고를 낭독자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기록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 훈련 기회를 주자는 의견.
- 마. “연설에서 문서로”라는 음성인식에 의한 기록경기 등 새로운 경기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7개의 상이한 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자도 부족한 형편이며, 언어별로도 동일한 음절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도 상존하는 형편 등을 이유로 곤란하므로 그 대신에 실시간 속기(RT) 방식의 시간을 10분이나 12분으로 늘리거나 빠른 번문경기로 되돌아가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의견.
- 바. 교정과 경기 분류표와 관련하여, 10명의 우수선수들의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의 제2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심사위원들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요약속기경기 시에는 참가 선수들이 타인의 원고에 대하여 일차적인 교정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
- 사. 기타사항으로 연설기록경기(SC) 시의 칼럼의 문제, 타이프라이팅과 속기 간에 경쟁하는 경기의 도입에 대한 의견 등.

4. IPRS 1차 미팅(9월 29일)

IPRS 책임자인 네덜란드의 Ms. Rian Schwarz는 환영 인사말을 하고,
첫째로, 2011년 파리에서 있었던 IPRS 미팅 결과를 보고하고,
둘째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IPRS의 활동을 보고하였음.

이어서 “회의록 작성을 녹음과 녹화와 동조화하는 것은 속기사들이 회의록을 편집하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Ms. Marlene Rijkse의 발제를 듣고, 4개 분임으로 나뉘어 토의한 다음, 분임별로 토의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함. 제1분임에는 정명순 서기관이, 제2분임에는 정순화 홍보이사가, 제3분임에는 김학순 주무관이, 제4분임에는 서광식 경남도 의사담당관과 이승철 고문이 배정되어 각각 별도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전개함.



IPRS 1차 미팅

두 번째 주제 “발언자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속기사의 임무인가?”에 대해서는 캐나다 상원에 근무하는 Mr. D'Arcy McPherson의 영상전화화를 통한 발제를 듣고 체코와 캐나다라는 먼 거리를 영상통화 기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IPRS 회원들과 회의를 하고 주제에 대해서 서로 질의 답변을 나누었음.

5. 중앙위 1차 세션(Council Meeting: First Session)(9월 29일)

개회식을 하기 전에 회장은 금년 초(2012년 1월 11일)에 타계한 명예회장 William Bonnet을 비롯한 몇 명의 세상을 떠난 회원과 그 부인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여 묵념으로 회의가 시작됨.

이들에 대한 묵념 후에 회장(Fausto Ramondelli)은 개회선언과 환영사를 마치고 중앙위원회의 의제를 상정하여 논의를 시작함.



Council Meeting(중앙위원회)

- 금년 9월 초 미리 배포한 회장과 사무총장(Denny Devriendt)의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승인함. 회장은 인터스테노의 새로운 지도부는 새로운 세대가 형성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사무총장은 인터스테노의 미래계획을 보고함.
(동 보고서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2. 인터스테노 이사회” 내용 참조)
- 2011 제48차 파리 총회에 대해서 프랑스 회장 장 샤를(Jean-Charles L Masson)이 보고하고 이를 승인함.
- 사무총장은 새로운 인터스테노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한 것과 각종 행사에 스폰서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인터스테노의 예산과 재정상황에 관해서 보고함.
- 인터스테노 125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보고함. 금년에 런던에서 긴 역사를 가진 인터스테노 기념행사를 가질 것이며, 이번 중앙위원회 기간 중에는 프라하에서 기념행사를 할 것임을 보고함. 그리고 이러한 인터스테노 역사에 관한 책을 발간할 예정이며, 이 책을 e-Book이나 DVD 등으로도 제작할 계획임을 언급함.

- IPRS의 책임자인 Rian Schwarz-van Poppel이 미국의 NCRA 총회에 참석하는 등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IPRS의 활동에 관해서 보고를 함.

(10분간 휴식 후 회의 계속)

- 2013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 벨기에의 겐트에서 열리는 제49차 인터스테노 총회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사무총장 Denny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속기경기대회 장소의 책상의 크기, 장소의 수용인원, 소음 문제 등에 대해서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함. 참고로 Denny는 인터스테노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이며 동시에 벨기에 겐트 총회의 준비위원장이기도 함.

6. IPRS 2차 미팅(9월 30일)

“※Virtual Reporting은 프리랜서 속기사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미국의 Ms. Patti Calabro의 발제에 이어서 4개 분임으로 나누어 토의를 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함.

※ 모든 회의 참가자들이 스마트 전화기나 웹 카메라가 장착된 PC를 통하여 회의 현장을 보고 들으면서 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속기방식

이어서 네덜란드의 Ms. Lida Horlings의 주도하에 IPRS의 미팅방식이 오늘처럼 바뀐 것은 지난 파리 IPRS 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는 후 향후의 IPRS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그리고 독일팀에 의한 virtual reporting 신기술에 관한 시연이 있었는데 7cm 정도의 안테나가 달린 자그마한 USB를 꽂기만 하면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속기록이 자막으로 뜨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었음. 그 이름은 “TEXT-On-Top”이었으며 독일의 Ms. Kimmerly Turnage가 시연했음. 최초의 실시간 자막달기 무선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했음.

또한 네덜란드의 Ms. Marianne van Gool에 의한 새로운 속기 타자기 시연이 있었는데 “Veyboard”라는 이름의 속기 타자기로서, 기존에 사용하는 건반식 타자기가 아니라 PC용 자판을 손가락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가운데는 모음, 좌우에는 자음을 한 묶음으로 배치하여 동시

에 키를 눌러도 자모를 모두 인식하여 글자를 화면에 바로 띄울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였음. 우리 한글의 구성 원리인 초성, 중성, 종성의 순서대로 자판을 배열한 것이 꼭 한글의 특징을 차용한 듯이 보였음.

그리고는 미국의 Ms. Linda Drake에 의한 음성인식장치의 시연이 있었음. 이 장치는 등록된 사람의 목소리만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서 주변의 소음을 방지하고 음성기록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음성기록을 하고 있었음. 동시통역하는 것처럼 발언자의 말을 바로 뒤따라가면서 되풀이하면 이를 기계가 인식하여 화면에 문자를 띄워 주는 방식이었음.

이러한 시연을 본 후에 우리 대표단은 한국의 속기계 현황에 대한 발표를 간략하게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음. 여러 나라 대표단은 우리 속기계 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음.(한국 속기계의 현황 소개 자료는 뒤에 첨부함)

끝으로 IPRS의 책임자인 Ms. Rian Schwarz-van Poppel은 IPRS 운영위원회는 IPRS 회의를 준비 계획함에 있어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를 했다고 했음. 이전 IPRS 회의 시에 때로는 간단한 토론이 있기는 했지만 참가자들은 모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으나 오늘 프라하에서의 IPRS 회의는 참가자들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했고, 이에 따라 모든 참가자는 워크숍에 그룹별로 참여하여 토론을 해야만 했음. 때로는 열띤 토론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새로운 방식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함. 따라서 Ms. Rian은 겐트에서는 보다 더 많은 워크숍을 준비하기로 하였다고 함.



7. 중앙위 2차 세션(Council Meeting: Second Session)(9월 30일)

- 2013년 인터스테노 총회 학술회의의 날에 관한 논의.

① 인터스테노의 이익에 부합하는 회원이 제출한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하고 프로젝트를 공모하기로 함.

- ② 겐트 총회는 보다 많은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보 쓰나미를 어떻게 헤쳐 나아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학술토론 주제에 집중하기로 하고 관련 논문을 공모하기로 함.
- ③ 네덜란드의 Ms. Lida Horlings는 이사회가 인터스테노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로고 개발이나 이사회 활동 등을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요원이 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도록하기로 함.
- ④ 회원의 경력을 근거로 하여 속기업무의 표준 자격사항을 다양하게 준비하기로 함.
- ⑤ 재판용 음성파일 변문 경기 참가자들은 일반 문서가 아닌 음성파일을 변문하게 될 것이며 심사위원들은 그 관련 규칙들을 검증하기로 함.

- (2010년 4월 30일까지 도착 분에 한함) 각국의 제안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경기심사위원회에 의해서 미리 심사평가되어 중앙위원회에 최종 제안으로 제출된 제안들에 대한 검토.(2013년 경기 관련사항)

① 인터넷 키보드 입력경기

선수 등록 : 2013년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경기 기간 : 2013년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유의 사항 : 연령범주와 최소속도에 관해서는 변경사항 없음.

유일한 분류표인 연령범주 관련 분류표가 사용되는 기술과 무관하게 배포될 것임.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분류표에 명시될 것임. 예를 들면 KB는 컴퓨터 키보드에 대한 약자로, SM은 부호화 키보딩(속기타자기 등)에 대한 약자로 명기됨.

회장은 2013년에 이 경기 참가자들을 두 배로 증가시키자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목표는 페이스북에 추가 메시지를 올림으로써 달성되도록 할 것임.

② 시상식

세계 챔피언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쏟아붓는 노력을 감안하여, 챔피언이 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라도 각 연령 그룹의 각각의 경기마다 시상대에서 3명의 최우수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음.

③ 실시간 속기경기

실시간 속기경기 시 젊은이들의 참가동기 유발을 위하여 선수들이 학생(pupil)의 경우는 최소한 4분간, 청년(junior)의 경우는 최소한 6분간 속기할 수 있다면 그들을 세계 챔피언으로 고려할 것임. 숙련자(senior)들의 경우에는 최소 속기시간 8분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함.

④ 서신과 요약속기

서신과 요약속기 경기대회에서 챔피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점수는 학생들에게는 250점 대신 230점으로 역시 하향 조정되었으나, 숙련자들에게는 270점에서 280점으로 약간 상향 조정하였음.

⑤ 연계 명부 인증

끝으로 다수 경기 참가자들 중 최고의 성적을 얻은 3명의 선수들에게 연계 명부 확인서를 주고, 메달을 수여함으로써 다수 경기 참가 선수들도 인증해 주기로 함.

⑥ 음성파일 변문경기

인터넷을 통한 파일전송 가능성 향상과 함께 디지털 녹음기술의 발달은 변문과정을 통하여 문서 작성(속기록 작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 속기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변문과정은 키보드로도, 속기기계로도, 혹은 음성인식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므로 우리 속기인들은 기술적인 변화에 뒤처지지 말아야 하고, 다른 이익단체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인터스테노는 우리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된 범주에 따라서 2013년 실험적인 음성파일 변문경기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여기에는 공식적인 성적이나 챔피언도 없을 것임. 그러나 이것은 규칙을 수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공식 분류 목록상 “속기”의 한 종류로 분류 통합될 것임.

8. 중앙위 3차 세션(Council Meeting: Third Session)(9월 30일)

- 인터스테노 교육위원장 Simon Sun은 교육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자격증 발급 프로그램에 등록 시 1인당 등록비를 5유로씩 받자는 제안을 했음.

- 인터스테노 과학위원장 Jean-Charles Le Masson은 과학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음.
- 인터스테노 회장 Fausto Ramondelli는 e-mach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인터넷 경기대회와 2013년 인터넷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 하루에 1000회, 2000회 방문하는 웹 사이트 정체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인터스테노 웹 사이트와 의사소통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강조함.
- 인터스테노 회장 Fausto Ramondelli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SNS나 페이스북, 리플릿 등 이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임을 언급함.
- 인터스테노 회장 Fausto Ramondelli는 회원자격을 검토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총회나 경기대회에 참석하고자 신청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내셔널 그룹으로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그리고 미국의 NCRA와 NVRA에게 회원자격을 주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준회원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을 언급함.
- 겐트에서의 2013년 중앙위원회와 총회 이후 다음 총회와 중앙위원회 모임 장소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2015년 총회와 중앙위원회의 후보지로 뉴욕, 베를린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베를린은 현지에 살고 있는 회원이 없으며 관련 기관 등과 커넥션이 없고 의회 속기사들은 폭증하는 업무에 시달려 속기경기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그리고 뉴욕은 2015년에 미 전역의 컨벤션과 겹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베를린은 생각할 시간을 갖고 고려해 보고 11월 말까지 답을 주기로 했으며, 뉴욕은 숙소 가능성 등을 확인해 보고 추가로 의논을 해 보기로 함.

9. 체코 의회 방문(10월 1일 오전)

체코 공화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하원은 임기 4년의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임기 6년의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2006년 사회민주당이 시민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이후 현재 시민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며,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서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



체코 의회 방문

통령이 재선된 후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있음. 총리는 시민민주당의 페트르 네차스 총리가 맡고 있음.

체코 의사당은 체코 국왕의 궁전으로 건축된 바로크식 건물인데 현재는 이를 리모델링하여 박물관 겸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음. 출입자 단속이 엄격하며 체코 대표의 안내를 받아 입장했음.

의사당 내의 한 회의장에서 인터스테노를 지원하시는 상원의원을 모시고 인터스테노의 활동에 관한 보고회를 가진 후, 상원의원의 인터스테노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회장이 인터스테노기를 선물함. 이어서 체코 의사당과 박물관을 둘러보고 체코의회 속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속기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10. 중앙위 4차 세션(Council Meeting: Fourth Session)(10월 1일 오후)

• 기타사항에 대한 논의

Fausto Romondelli 회장은 겐트 총회를 위한 마케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 마케팅은 오직 내셔널 그룹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에 대해 경기심사위원장인 Georgette Sante는 IPRS처럼 작은 그룹, 큰 그룹을 만들어 인터스테노가 무엇인지를 홍보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제안함.

Fausto Romondelli 회장은 속기업무나 발언의 문서화작업에 대한 인터스테노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력이나 신뢰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필요사항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역설함. 이에 대해서 프랑스 대표이자 과학위원장인 Jean Charles은 근무기관 적합성, 근무능력, 기술력 등을 질문서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자격증을 수여해야 한다고 함. 이에 대해 미국의 NCRA 대표인 James M. Cudahy는 미국의 경우는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격증 필요사항을 표준화하고 있음을 설명함.

Fausto Romondelli 회장은 상이한 자격증이 고려되어야 함을 역설. 그리고 예산과 프로젝트의 산출물 간에는 균형감각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을 주문함. 이에 대해서 경기심사위원장인 Georgette Sante는 회사들과 연계한 전문가 자격시험은 NCRA,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지적함. 사무총장 Danny Devriendt는 기술력을 검증하는 자격증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속기록이라는 윤리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함.

11. 보헤미아 유리공장 방문(체코 북부지방)(10월 2일)

말로만 듣던 보헤미아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음. 체코의 북부지역에 있는 농업지대였으며 그 농업지대 가운데에 손으로 유리공예품을 만드는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음. 체코의 유리공예품은 수제품이라는 점과 아름다운 색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그 역사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함.

인터스테노 회원들은 한 유리공장을 방문하고 이 공장에서 유리공예작품 만드는 공정의 일부, 즉 긴 대롱에 유리 원료를 문혀서 불어가면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기도 하였음.

▶ 성 과

-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에서 앞서가는 속기계 현황과 한국의회의 속기와 기록문화의 선진성에 관한 홍보로 국제적 위상 제고.
- 회의록 작성과정에 관한 다양한 각국별 경험과 정보의 상호 교환.
- 속기사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등 각국 대표단에 우리의 체계적이고 왕성한 속기사 양성 체계를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받음.
- 음성인식장치를 이용한 연설기록방식과 Veyboard라는 새로운 기계속기방식, 그리고 TEXT-On-Top이라는 와이파이 장치를 장착한 실시간 속기장비의 시연을 접하는 등 다른 나라의 기계속기 방식을 한국 기계속기 방식에 접목할 연구 기회와 아이디어를 얻게 됨.
- 지난번 회의 때와 다른 사람들도 참석함으로써 여러 나라의 속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속기 관계인들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국제관계 속기협회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됨.
- 중앙위원회에는 중국 대표가 참석하였으나 금년 IPRS 회의에는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에서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참석하여 동 회의에 참석한 유럽과 미 대륙 대표들에게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비중이 크게 부각됨.

▶ 건의 사항

- 한국 의회와 속기계의 선진적 기술에 의한 속기록의 작성과 체계적인 속기사 양성에 관한 소개를 통하여 한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속기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터스테노 총회 등 공식적인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각국 속기협회 간 비정기적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 국제 속기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경기대회, 지역프로젝트의 공모, 젠트 총회 학술대회를 위한 논문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이러한 국제행사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터스테노 회장과 체코인 부회장, 그리고 사무총장과 과학위원장의 조언이 한결같이 한국의 서울에서 2016년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사 타진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가부간에 그 답을 인터스테노 이사진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음.
- Fausto Ramondelli 회장은 속기경기대회 시의 채점과 심사를 위한 근거자료로 한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또 요약속기 경기심사위원장인 Jan den Holder는 한글속기 채점기준과 관련하여 한글은 한 글자가 한 음절인가 아닌가, 그리고 분당 속기기준이 음절인가 글자인가를 문의한 바 있음.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한글속기 채점기준과 관련되는 한글 음운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인터스테노 회장과 경기심사위원장에게 보낼 필요가 있음.
-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나 총회 등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계를 가질 필요도 있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관계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인원 1인에 새롭게 참석하는 인원 2~3인을 배합할 필요가 있음.

〈참 고〉

한국 속기계 현황에 관한 발표자료

Report on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 Stenography

30. September. 2012

Seung Chul Lee

Adviser to Korea Stenography Association

Ladies and Gentlemen,

IPRS members!

It is my honor to introduce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 Stenography(Association), on behalf of Kyung Sik Lee, the chief director of Korea Stenography Association.

Before the presentation, first,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the chief director of KSA, Mr. Lee told me to say hello to you, Council members and IPRS reporters. Secondly, I would like to introduce Korean delegation to this meeting.

Section chief of the Stenography Depart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Myung Soon Jung,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of KSA, Soon Wha Jung,

Editor of the Stenography Depart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Hak Sun Kim,

Public officer in Kyongnam Province local assembly, Goang Sik Seo,

and this is Seung Chul Lee, Adviser to KSA.

Now, let me introduc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Korea Stenography briefly.

In Korea, the stenography began to be used for keeping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year 1948, three years after the World War II. The Korea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Parliament, has begun in that year, and we stenographers took notes of its all proceedings from the opening day till now.

Concerning the shorthand technology, we began with pen shorthand, but from the late 1980s, the machine shorthand was introduced. At first, there were two kinds of style, regular PC keyboard and Chord keyboard style, but now the Computer Aided Steno-machine(CAS) is the main stream of machine shorthand in Korea. CAS is a popular brand name in Korea.

Looking back over the 65years' history of Korea Stenography, from the early 1980s the demand for stenographers became slow. But, around the late 1980s, the local autonomy was carried into effect and the demand for stenographers of the local assembly was raised up quickly, and at the same time, the demand for the transcription service in the courts, the demand for captioning and subtitling in the broadcasting companies were increased rapidly. Consequently, the gradual decrease of the demand for stenographers in the early 1980s was reversed, in late 1980s, to the rapid increase of them with the introduction of CAS, the new shorthand technology! Speaking of the stenographers work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y are recording the Plenary Session and 18 standing committee meetings. And for the recording Plenary Session, House Steering Committee, and for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Budget and Accounts, they make verbatim records. They deliver the records on the next day early morning. For the other standing committees, they

also make verbatim records, but the delivery of the records takes 2 to 5 days after the closing of the meetings. And, they produce the records in a remote manner, not in a realtime manner in the National Assembly.

We have about 1700 stenographers and 3300 students who have learned or are learning machine shorthand in Korea. 1700 stenographers are work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in the National Assembly, local assembly, the court, and the other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Especially, about 80 stenographers using CAS are working for the captioning and subtitling service in the broadcasting companies. They produce captions in a realtime manner.

I have read a writing of the President, Fausto Ramondelli from the E-news 52. "From the President's Desk" was the title. He puts the emphasis on the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and "Parliament reporting" as the expecting themes in 2013 Intersteno Congress in Ghent, Belgium. These two outstanding problems are the same questions in Korea. The rapidly increasing workloads of stenographers and the budget saving trends of institutions lead us to consider another new technology to cope with these two. So we have deep concern with the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and the other new technologies taking notes with less time and cost.

As I mentioned before, many stenographers, about 1700, are working in Korea. But, it is also true that they neither have so much satisfactory income, nor have much chances to promote themselves in their institutions. These make the young stenographers' working period short, and that is why we can see little young male stenographers in this working field today. But the demand for the stenographers is steady, and more than 3000 students are learning stenography now in Korea. So, we have a hope still in this working field.

Now, I am closing my presentation and I would like to address my special thanks to Czech friends, Board member Ms. Rian Schwarz, IPRS Steering Committee Chair Ms. Lida Horlings, its member Ms. Marlene Rijkse, and Ms. Patti Calabro for allowing me to make a speech in this IPRS meeting.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Thank you very much.



인터스테노 회의 참가 스케치

정 명 순

I. 들어가며



2012년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린 인터스테노 회의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앙위원회였다. 작년 파리 회의는 총회인지라 37개국 6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의 행사였지만 이번에는 15개국 76명이 참석한 상대적으로 단출한 회의였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3명, 경남도 의회에서 오신 서광식 의사담당관, 이렇게 4명에다가 자부담으로

함께한 김학순 회원까지 해서 5명이 한국 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체코 프라하, 개인적으로는 매우 동경하는 동구 도시 중의 하나이다. 국제회의의 참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장을 주는지는 닥쳐 봐야 알 바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일단은 열일을 제치고 달려가고 싶은 곳!

회의 참가차 떠난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동구는 우리보다 보름 이상 계절이 빠르고 일교차가 커 아침저녁이 제법 선선했다.

속기협회 고문으로 계신 이승철 우리 단장께서 'INTERSTENO 중앙위원회 및 IPRS 회의 참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와 중복되지 않도록 얘기해 보고자 한다. 때문에 중요한 줄기보다 겉가지를 스케치하는 정도가 될 것 같다.

II. 체코 프라하 가는 길에 경유한 국가

프라하까지 가는 국내선 직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가는 LH항공을 이용하였다. 부다페스트에서는 동유럽일을

이용하여 비엔나까지 가고 비엔나에서도 동유레일을 타고 프라하로 들어갔다.

2010년 부다페스트 중앙위원회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경유지가 되기도 해서 그 때와 같이 세 방여행사의 도움을 받아 숙소, 차편 등을 예약하였다.

1. 헝가리 부다페스트

약 팔구백 년경 말갈족이 건너가 세운 나라라 하는데 얼 굴 모습에서나 음식, 언어에서 아시아적 분위기가 많이 녹아져 있다 한다.

도나우강을 사이에 두고 부다와 페스트 지구로 나뉘어 있다. 어부의 요새, 마차시 사원, 부다왕궁, 겔레르트 언덕, 영웅광장 등을 돌아보는 동안 간간히 감탄사가 연발되는 것은 어찌나 하늘이 맑고 파란지 도나우강의 물결, 헝가리인의 눈빛은 비길 바가 못 되었다.

국회의사당은 영국 국회의사당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한다. 웅장하고 섬세한 고딕 양식인데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세워졌다. 역대 통치자 88명을 기념하는 동상, 1년 365일을 상징하는 365개의 첨탑이 있는데 소련군의 철수와 헝가리 민주화를 부르짖다 소련군의 흉탄에 많은 학생 시민이 희생된 민주주의회정치의 현장이라 한다. 아쉽게도 우리는 강 너머로 그러한 걸모습만 바라보았다.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꼭 닮은—품목이나 가게 모습까지도—레행시장, 파프리카 가루로 매운 맛을 낸 현지식 굴라시스프도 인상적이다.



헝가리 국회의사당에서

2. 오스트리아 비엔나

부다페스트에서 서너 시간 가까이 동유레일을 타고 비엔나에 밤 11시 가까이 도착했더니 국회의사국장으로 계시다가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으로 가신 이종후 공사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셨다. 공사님의 차량으로 숙소까지 안내해 주셨는데 예약이 취소되어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내부

곧 동급의 호텔로 바로 연결이 된 것은 공사님의 도움 덕분이었다.

구한말에 우리와 통상조약을 맺었다는 오스트리아는 인구 840만, 국토의 3분의 2가 산악지역. 그 산악지역에 알프스 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게르만족이어서 독일어를 사용하고 합스부르크왕가, 모차르트 등 국가 브랜드 음악가를 많이 배출한 나라로서 작년에는 비엔나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다.

벨베데레궁전, 케른트너 거리, 비엔나의 상징이라는 검은 모자이크 지붕의 성 슈테판 사원, 쉐브룬궁전, EU 학생이면 박사과정까지 무료라는 비인대학, 공공임대주택인 훈데르트 바셔 빌리지, 비엔나 중앙묘지, 베토벤 하우스를 대충 훑었다.

우리의 필수 코스인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은 얼핏 파르테논 신전 같은 모양이었다. 내부 조각상이나 장식 그림도 참 고색이였다. 상하원 회의장 내부 구조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사무처 직원의 사무실도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재작년 부다페스트 중앙위원회 참석자들이 당시 백환기 공사의 안내로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속기사들과 면담을 하고 속기과 운영 체제도 소개를 받은 바 있으므로 우리는 면담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

의사당 참관을 하려면 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입장료가 있다는 사실은 공사님께서 입장료를 지불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비엔나 시내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교통 또한 엄청 막히는 도시였다. 프라하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가는 동안 길이 막혀서 다들 조마조마해 했다. 공사님께서도 내심 걱정이 많이 되셨다고 했다. 출발 5분 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하긴 했지만.

Ⅲ. 체코 프라하에서의 인터스테노 회의

인터스테노 회의가 열리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기간은 주말이 끼어서인지 프라하에 관광객도 많이 모이거나 각종 세미나, 국제회의가 집중되어 있다 한다. 우리 인터스테노 회의도 이 3일간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뽁뽁하게 짜여 있었다.

6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밤늦게 프라하 DUO호텔에 도착하였더니 호텔 로비가 들고 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다. 그 중에는 인터스테노 참가자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사실 국제회의 경험이 없는 나는 참가가 결정이 된 이후부터 내심 걱정이 많이 되었었다. 때문에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휴게실에 모여 최윤정 국제이사나 작년에 다녀온 조미경 씨에게 많은 조언과 경험담을 듣기도 하고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정보 교환을 하는 등 틈틈이 그동안 무심했던 인터스테노 익히기에 바빴었다.

마침 영어를 잘 구사하는 이승철 고문이 계서 천만다행이었다. 게다가 미국에서 3년을 생활한 김학순 회원은 틈틈이 붙어, 중국어 등도 익힌 바 있으므로 프랑스·중국 대표들과의 만남이 기대되었다. 역시 외국인과 어울리는 것에 기중 올렁중도 털어서 많은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부러웠다. 서광식 담당관님도 일본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일본 대표단을 만나면 실력 발휘를 하겠다 했는데 아뿔싸, 일본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 왜 안 왔을까.....

그간 우리나라 인터스테노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회의 개최 날짜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 애로도 있었다 한다. 마침 우리는 하루 전에 도착할 수 있어 여유로웠다. 하여 회의 당일 아침 식사 장소에서부터 회장 등 대표단 몇 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고 여기저기 회의 장소도 미리 익혀 두었다.

1. 회의의 종류

- 1) Board Meeting(운영진 회의) : 비공개로 개최되는데 한국은 운영진 멤버가 아니므로 참석하지 못한다. 8인의 이사들만 참석하여 인터스테노 회의 의제들에 대하여 의논한다는데 참고로 8인 이사의 명단은,

회장 Fausto Ramandelli(이태리)

부회장 Jaroslav Zaviacic(체코), Mark Golden(미국)

감사 Danny Devriendt(벨지움)

심판장 Georgette Sante(벨지움)

과학위원장 Jean-Charles Le Masson(프랑스)

이사겸 IPRS 책임자 Rian Schwarz-van Poppel(네덜란드)

교육위원장 Simon Sun Hulmin(중국)

- 2) IPRS(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er's Section) Meeting(의회속기사부 회의) : 의회 속기사들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의회 속기사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단일 국가든 연방제 국가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 속기사가 보다 나은 회의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된 단체. 이번에는 두 차례의 모임이 있었다.

- 3) Jury Meeting(경기 심사위원회) :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위원이 아니라 참석할 수 없었다.

- 4) Council Meeting(중앙위원회) : 네 번의 세션이 있었다. 이 중 우리는 IPRS Meeting과 Council Meeting에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IPRS 회의에서는 첫 시간부터 분임토의가 있어 당황했었다. 미리 그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작성해 가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재빨리 단어 검색을 해 가며 회의에 임하는 김학순 회원의 모습이 참 진지해 보였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INTERSTENO 회의 및 IPRS 회의 참가 보고' 참고)



IPRS Meeting



Council Meeting

2. 회의 외의 일정

1) 환영만찬

Duo호텔 만찬장에서 19시 50분부터 있었다. 우리는 처음 참석이라 다른 나라 참가자들이 낮이 설고 하였으나 그래도 우리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해 주고 작년 · 재작년 대표단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특히 벨기에에서 오신 테레사 할머니는 연세가 84세라지만 정정하시며 주로 불어로 말씀을 하신다. 잘못 알아들겠어도 반갑다는, 또 내년에 겐트에 꼭 오라는 뜻은 읽을 수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Jean-Charles는 차근차근 친절하게 대화를 잘 유도해 주었다. 동양 쪽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 한국에서 회의를 개최해 주면 꼭 가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학원을 2개나 경영한다는데 노래도 잘 불러 상송을 조그맣게 불러 주기도 하고 우리가 불러 주는 아리랑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중국팀도 매우 반가워했다.

2) 인터스테노 125주년 기념 만찬

프라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Castle Melnik에서 있었다. 멜닉은 볼타강 등 3개의 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라 수량도 풍부해서 체코의 대표적 포도 재배 마을이기도 하다는데 석양의 노을과 어우러진 멜닉성은 정말이지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중세의 풍경 같았다. 내부 관람과 와인 저장동굴에서 와인맛 시음 후 만찬장에 도착하였다.

회장의 축사와 4단으로 된 케이크—125 숫자와 인터스테노기가 새겨진—자르기와 건배, 느리고 느린 만찬이 시작되었다.

분위기가 화기에애해질 무렵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조그마한 선물을 우리 테이블에 살짝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프랑스 속기협회 회장이라는 멋쟁이 자갈린은 에펠탑 모양이 담겨 있는 작은 고리, 헝가리에서는 코사지, 중국 팀은 전날 회의장에서 매듭으로 만든 봉어 모양의 핸드폰 고리를 주었다. 우리는 준비해 간 손톱깎이 선물을 IPRS 회의 쉬는 시간에 나누어 주었는데 꺾도 예쁘고 크기도 양중맞아선지 흐뭇한 표정들이었다.

만찬 시 나온 스프의 용기가 빵으로 되어 있어서 스프와 함께 그릇까지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신기하였다. 맛은 많이 짜다.

3) 체코 의회 방문

역시 의회 건물이라기보다 중세풍의 화려한 외양의 건물이었다. 본디 의회를 위해 지은 건



125주년 기념 만찬

물이 아니고 궁을 개조한 것이어서 회의장이 협소하고 불편해 보인다. 회의장이 그러니 직원들의 사무실은 더 협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출입 절차가 엄한 것을 보니 이런 공식 방문이 아니면 의회 내부를 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체코 의회 속기부서 등을 보았으나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의사당이라기보다는 왕궁에서 나온 듯했다. 체코는 명실상부한 공화국이라는데.

4) 프라하성 관광

네 번째 위원회 세션까지 다 마치고 관광을 나서다 보니 저녁 무렵에 도착하게 되었다. 프라하성은 멀리서만 보고 대신 까를교 밑에서 유람선을 타는 기회를 가졌다. 5년 전에 프라하를 와 본 적은 있지만 유람선을 타지는 않았는데 색다른 경험이었다.

유람선을 내려서부터는 뽀뽀이 자유 시간이었다. 우리 일행은 까를교를 건너 프라하 시가를 걸으며 야경을 즐기다 중국식 저녁 후 전철을 타고 호텔로 들어왔다.

5) 북부 보헤미아 유리공장 체험

프라하에서 약 2시간 거리의 북부 보헤미아 지방은 유리의 도시라 할 정도로 이미 중세부터 유리산업이 발달했다 한다. 가는 길에는 야생인지 사과나무가 많았다. 주렁주렁 많이 달렸는데 크기는 조막만해서 먹음직스럽진 않다. 일조량이 적어 더 이상 많이 크진 못한다고 한다.

15세기부터 300여 년 동안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보헤미아지방에는 국가를 거부하고 유랑하며 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집시를 보헤미안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 한다.



보헤미아 유리공장

오랜 전통의 유리공장치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다. 한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유리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구경하고 건너편 건물에서 꽤 유명하다는 체코 흑맥주를 맛보며 현지식 점심을 들었다. 그리고 가마에서 시뻘겋게 녹아 나온 유리뭉치를 우리가 입으로 불어 화병 모양을 만드는 체험을 하였다. 그리고 기묘하게 형성된 계곡을 걸어 내려가서 래프

팅도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어둑어둑할 무렵 도착하는 바람에 래프팅이 어렵다 한다.

북부 산악지예다 저녁 무렵이라 날씨가 꽤 쌀쌀했다. 안내를 맡은 체코인 엘레나는 센스 있게 따끈한 수프를 주문해 주어서 목이 부은 나는 참 고마웠다.

우리 맞은편에 계신 분들은 부부였다. 회원은 아니나 부인을 따라오신 모양이다. 별말씀은 안 하시지만 조용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우리와 일정을 같이해 주었다. 회의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우리와 달리 유럽권 내에선 유레일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도 적으니 그렇게 다니는 것도 좋겠다 싶다.

3. 새로운 속기 방식 시연

1) Virtual Reporting

독일, Ms. kimberly Turnage 시연

2) Veyboard(속기타자기)

네덜란드, Ms. Marianne van Gool 시연

3) 음성인식장치

미국, Ms. Linda Drake 시연

(자세한 설명은 'INTERSTENO 회의 및 IPRS 회의 참가 보고' 참고)



음성인식장치

4. 속기 업무 영역과 기록방식 현황

아래 내용은 IPRS 회의 참석 시 빠른 이해를 위해 참고가 될 것 같아 기록해 본다.

1) Kind of Reporting(작성 제공하는 속기록 종류별 업무영역)

Verbatim Reporting(전언 속기록 작성.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속기)

Summary Reporting(요약 속기록 작성)

STT/CART Reporting(음성인식기에 구술하여 속기록 작성하는 것인데 등록된 사람의 목소리만 인식)

Captioning(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용 실시간 속기록 작성)

Transcription(일반인을 위한 자막방송용 속기록 작성)

2) Tools Used(속기록 작성 방식)

Regular PC Keyboard(일반 pc 키보드)

Chord Keyboard(속기타자기 키보드)

Pen Shorthand(수필속기)

Speaker dependent voice recognition(특정 대화자 음성인식)

Speaker independent voice recognition(불특정 대화자 음성인식)

Audio recording(음성기록)

Video recording(영상기록)

3) Methods of Production(시간에 따른 속기록 제공 방식)

realtime(실시간 제공)

remote(약정한 일정한 시간 후 제공)

IV. 다음 인터스테노 회의의 준비

1. 제49회 인터스테노 총회

IPRS 책임자인 Ms. Rian Schwarz-van Poppel은 IPRS 회의 시 듣기만 하는 형태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소그룹 토론을 통해 토론 결과를 발표했던 이번의 방식을 2013년 총회에서는 더 많이 준비할 것이라 했다. 따라서 우리도 겐트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1) 개최 장소 · 일자 : 벨기에 겐트, 2013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2) 2013년 인터스테노 총회 시 예상되는 주제들

i 음성인식기술(ARS :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자막방송, 관련된 모든 언어들로 작성하는 EU 의회공보, 휴대전화 자동번역 등 다양한 기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전문기술을 공통 기반기술로 하고자 하는 연구와 개발 노력이 이태리 · 독일 · 영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다.

ii 의회 회의록 작성(Parliamentary Reporting)

의사소통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키보드 입력 방식, 음성기록 방식 등이 속기 방식의 신속 정확한 문서작성에 도전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보표준의 출현(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동조화(synchronization))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의회 회의록의 의미와 기능은 무엇인가.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결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회의록은 지금도 유효한가.

문서 회의록이 과연 가장 중요한 기록수단인가.

문서 회의록이 유용하다면 과연 누구에게 유용하다는 것인가.

어떤 종류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인가.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의회 회의기록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인가.

의회 회의록의 새로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

아무튼 회의록 작성과 편집 과정에서 인간이 기여하는 지적 활동의 공헌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서—회의록 형태, 회의록 작성 기술과 이론, 업무과정 등—미래의 새로운 모습을 찾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 2016년 한국 중앙위원회 준비

회의 기간 라만델리 회장은 우리에게 경기대회 심사자료로 참고하기 위하여 한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자음 모음 체계 등에 관한 책자를 보내 달라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인터스테노 개최를 여러 차례 주문했는데 그전 회의에서도 간간히 운을 떼 바 있다고 한다.

총회보다도 우선 규모가 작은 중앙위원회를 열게 된다면 2016년에 서울에서의 개최를 계획해야 될 듯하다. 서울 회의는 단순히 장소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매끄럽게 잘 진행하고 회의 주제에 맞게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력, 예산, 전담 인력, 네트워크 형성 등 여러 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V. 마치며

2012년 중앙위원회는 속기경기대회가 없어서인지 나라 간 경쟁심으로 인한 긴장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다. 덕분에 그때그때의 분위기를 따라 부담 없이 움직였다고 할까.

멤버 중 경남에서 오신 서 담당관님은 입담이 좋으셔서 몇 시간 동안 타야 되는 유레일 여행이 지루하지 않았는데 ‘쑥 캐는 경남 할매’ 얘기는 반복 들어도 웃음이 터졌다. 반면 부지런도 해서 아침 조깅을 하루도 빼놓지 않으셨고 그 기간 동안 틈틈이 책도 몇 권 읽으실 정도였다. 김학순 회원은 평소에 인터스테노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많았던 차에 부군이 참석하는 계기에 같이 오게 되었다. 정순화 홍보이사도 처음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등록 연락 등 회계·총무 일을 맡아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뒷바라지를 잘해 주었다.

이번 준비를 하면서 복장에 대해 약간 궁금했었는데 회의 주최 측으로부터 복장에 관한 메일이 온 바 있었다. 즉, 드레스 코드는 IPRS Session에는 Casual, 125주년 기념만찬에는 Smart Casual이라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교차가 크므로 쌀쌀한 아침저녁과 더운 낮 기온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했다.

보헤미아에서 숙소로 오는 길은 그야말로 철혹의 어둠이었다. 지방이기도 했지만 산악 지역이라 가로등이 거의 없어서인데 문득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빙그레 우리를 따르고 있었다, 구불구불 길을 따라 때론 이쪽에서 때론 저쪽 산 너머에서. 아, 잊그제가 추석!

체코까지 따라온 우리 한가위 달의 호위를 받으며 호텔 Duo에 도착, 버스에서 내리니 모두들 작별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였다. 며칠간 회의장에서 대하고 식사시간에 스치면서 이제 친해졌는데 벌써 각자 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인사는 씨 유 어게인 인 겐트!



인터스테노 회의 참가 스케치

정보소외계층의 국회의원록 접근성 강화

국회의정기록과 연구논문팀

- 편집자 주 -

국회사무처에서는 매년 입법연구논문 제안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국회 의정기록과에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회의록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수요자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제안한 2012년 입법연구논문 중 발췌한 글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정보 소외계층으로 전락되고 있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배려 측면에서 특히 국회의원록 시스템의 웹 접근성 실태를 살펴보고 그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1.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정보화 사회에서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은 인터넷이 주는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 외에도 경제적·사회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 소외 계층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정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268만 명이고 장애 출현율은 5.61%로 인구 1만 명 중 56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등록률은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p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증가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나아가 현재보다 더 다양한 방면에서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기대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 장애인의 평등한 정보 접근을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웹 접근성을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는 국가기관조차 각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한할 뿐 관련 사이트들은 접근이 어려우며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콘텐츠 개발도 미미한 실정이다.

웹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편의성과 가치가 극대화

된다. 국회의회의록시스템 역시 정보 소외계층에게도 예외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회의록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상세히 기록한 결과물로서 모든 국민들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현황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국회의회의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2. 공공기관 웹접근성 현황

가. 국회의회의록시스템 접근성 실태

회의록시스템은 말 그대로 회의록을 일반인들이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전맹자와 같이 볼 수 없는 사람들, 색약·색맹·약시자·고령자 등 정확히 보기 힘든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 홈페이지 제작이 없다면 회의록 열람에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회의록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그림 1] 국회의회의록시스템 메인 화면

국회의회의록시스템

대한민국 국회 | 회의록개요 | 최근회의록 | 목차검색 | 상세검색

본회의 | 전반기위원회 |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국정감사 | 국정조사 | 소위원회

회의록검색

회의구분: 전체 | 내: 제198(2008-2012) | 제199(2012-2016) | 검색

상세검색

최근회의록 (2012년 4월 19일 현재)

번호	대	회기	차	회의명	현황	회의일
1	제198국회	제307회	제1차	본회의	> 안전보기	2012. 05.02
2	제198국회	제30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 안전보기	2012. 05.02
3	제198국회	제307회	제1차	행정수상석상위원회	> 안전보기	2012. 05.01
4	제198국회	제307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안전보기	2012. 05.01
5	제198국회	제30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 안전보기	2012. 04.26
6	제198국회	제307회	제1차	정부위원회 [행정감사소위원회]	> 안전보기	2012. 04.24
7	제198국회	제307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안전보기	2012. 04.24
8	제198국회	제307회	제11차	세계지리학회지특별위원회	> 안전보기	2012. 0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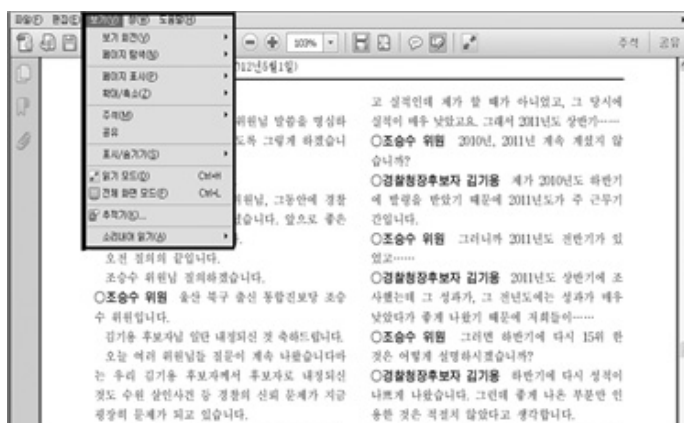
회의록시스템 메인 화면이다. 우측 상단에 ‘영상도움말’이라는 탭이 있다. 그 탭을 클릭하면 회의록시스템을 소개하고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 제공된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회의록시스템 사용방법 및 소개를 텍스트와 영상 두 가지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이트 소개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회의록시스템에는 사이트 소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별도로 고려된 웹 기반 장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의록시스템은 회의록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홈페이지 사용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볼 수 없거나 정확히 보기 힘든 사람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회의록을 제공받기를 희망할 때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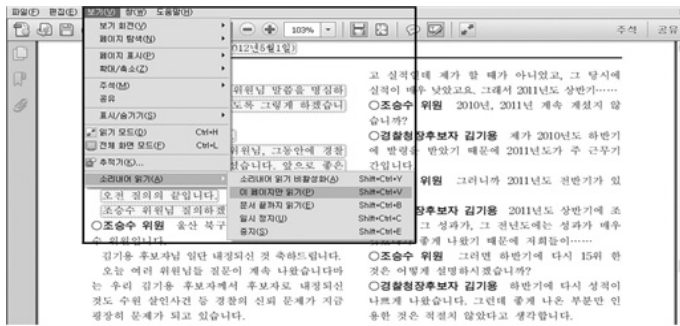
물론 회의록시스템의 내부 프로그램에 의해 회의록 열람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 [그림2] 회의록 PDF 파일



위의 그림과 같이 회의록시스템에서 회의록은 어도비 리더(Adobe Reader)라는 Adobe사 PDF 파일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PDF 파일로 제공된다. 이 뷰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 글자 확대·축소, 추적기, 읽기 모드 등이 가능하고 이는 저시력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어도비 리더 프로그램에는 ‘소리 내어 읽기’ 기능이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소리 내어 읽기’를 클릭하면 음성 지원이 가능한데 아직 한국어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어서 회의록시스템에는 무용지물이다.

어도비 리더 프로그램 기능으로 회의록 본문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보 소외계층이 회의록시스템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메뉴를 보고 원하는 회의를 검색하여 그 PDF 파일을 클릭하기까지가 현재의 회의록시스템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타 공공기관 사례

(1)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국회도서관은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로 웹 접근성 지침 준수는 물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98.8점이라는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다.

화면 크기 조절 기능 제공은 물론 글자색과 바탕색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색약이나 색맹 이용자를 배려하였다. 또한 다른 사이트에 비해 메인 페이지를 비교적 간결하게 구성하여 홈페이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이용 시 의도하지 않은 팝업 창은 스크린리더 및 화면 확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인식에 큰 불편을 주며 키보드만을 사용하는 상지 장애인에게도 불편을 준다. 국회도서관은 이를 방지하고자 메인페이지 내에 팝업존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이 역시 사용자가 임의로 정지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¹⁾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 국가별 소장도서 목록을 안내하는 배너를 설치하여 국가별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Web Watch, WA 인증마크 가이드라인, 2011, p.37

전자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자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따로 시각장애인용 배너를 설정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음성서비스가 지원되는 도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등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소외계층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부서답게 장애인이 홈페이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이콘마다 적절한 제목과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이미지는 의미를 단순화시킨 그림으로 표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 이용안내’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고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저시력자와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SS²⁾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CSS는 Cascading Style Sheets의 약자. 웹 문서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미리 저장해 둔 스타일시트. 문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세세한 스타일 지정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홈페이지이용안내

❶ 글자크기 조절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접근근성을 준수하여 글자크기를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❷ 글자가 작게보일때는 브라우저의 보기 > 텍스트크기 > 보통으로 설정하시게 바랍니다.



❸ 글자를 좀더 크게 보려면 브라우저의 보기 > 텍스트크기 > 크게 로 설정하시게 바랍니다.



3. 국회회의록시스템 접근성 제고방안

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설된 홈페이지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할 수 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이러한 품질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접근성 수준 향상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정보 접근권을 높일 수 있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도 상승할 뿐 아니라 웹 접근성 지침 준수 사이트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도 부여받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회의록시스템도 웹 접근성 지침에 따라 사이트를 구축한 후에 위 기관이 부여하는 품질마크를 획득한다면 장애인, 고령자 등이 회의록시스템에 접근하기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회의록시스템의 신뢰도도 상승할 수 있다. 또한 그 중요도에 비해 이용률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회의록의 홍보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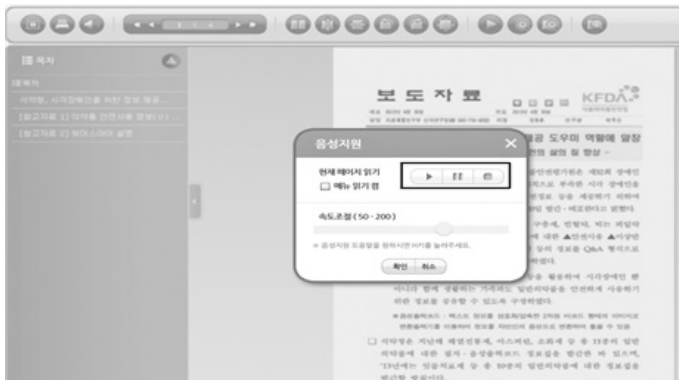
나. 읽어주는 회의록 서비스 제공

(1) 국회전자도서관 사례

국회전자도서관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 및 약시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음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PDF 파일을 열고 좌측 상단 스피커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과 같은 음성지원 창이 뜨게 되고 재생을 누르면 텍스트가 음성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그림 5] 전자도서관 전자책 열람 화면



다음 그림은 국회전자도서관 메인 페이지에서 ‘웹 접근성’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를 캡처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전자도서관의 모든 자료가 음성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PDF 파일 원문을 볼 수 있는 자료 중에서도 음성지원이 가능한 파일이 있는 반면 음성지원이 불가능한 파일도 있다.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음성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2011년 5월 말 기준으로 도서자료 8438건, 비도서자료 1004건, 학위논문 20만 384건, 학술기사 1147건, 인터넷자료 21만 1502건으로 총 42만 2475건이다. 음성지원이 가능한 대상을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TextPDF 자료 및 오디오북

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전자도서관 키워드 검색 결과

번호	자료명/제자사항	발행자	발행년	연구기호	자료상	비고사항	문물	특 성
11	[학위논문] 법 문헌소 법근성 지질 1.024 2.001 비교를 통한 법 문헌소 공적대헌정	2011	TM 656.438 ~11-940	107호				
12	[학위논문] 공중 법 법근성 공물리크 목적을 위한 비교 연구 / 전	2011	TM 621.29 - 11-587	107호				PDF 문물 공공 지질 가능 PDF 문물
13	[학위논문] 공공정보의 공법적 수제를 위한 법 법근성 개선 방	이화여대 디자인대 학원	2011	TM 745.2 - 11-50	107호			
14	[학위논문] 이라성 시스템의 법 문헌 법률 현황 분석 / 문	경기도 교육대학원	2011	TM 656.07 - 11-94	107호			
15	[학위논문] 제1회 3급 국가 공물에서 법 시스템의 포괄 사이	국립대 테크노다자 인간문대학원	2011	TD 741.6 -11 ~117	107호			
16	[학위논문] 공중의 일관성서비스와 이라성서비스 법근성 비교 문	한국방송통신대 문 성대학원	2011	TM 371.334 ~11-10	107호			
17	[학위논문] 특수학교 아동의 법근성 문물 및 문물 / 김남영	공주대 교육대학원	2011	TM 371.96479 - 11-13	107호			
번호	자료명/제자사항	발행자	발행년	연구기호	자료상	비고사항	문물	특 성
21	[학위논문] 인용성 문물 및 문물지질 법률을 이용한 문물지질 이용환경 개선 연구 / 이문호	동국대 국제정보대 학원	2011	TM 656.5 - 11-86	107호			
22	[학위논문] 법 법근성 제정에 기반한 법 문물 제정을 지원하는 도	송남대 대학원	2011	TM 656.74 - 11-14	107호			
23	[학위논문] 법 제정자의 법 법근성지질 문물지질에 영향을 미치	동아대 대학원	2011	TM 656.438 ~11-166	107호			
24	[국내학술기서] 대한 법 법근성 문물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대학 을 중심으로 / 서문갑 (Entry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제10권 제1호 통권 제18호 (2011년 1월))	LG CNS	2011	621.38 643	504호			
25	[국내학술기서] 디지털 법 서비스 법근성 향상을 위한 WNC 학 장 문물에 대한 연구 / 김문호, 김희재, 김유진, 조희희, 김명환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제12권 제1호 (2011. 3)	한국디지털콘텐츠학 회	2011	364 4 329	504호			PDF 문물 공공 지질 가능 PDF 문물
26	[국내학술기서] 사적정보인법근성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 찰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 박경신, 김기연, 김성동, 장승 희, 차필규 고려법학, 제41호 (2011년 4월)	고려대학교법학연구 원	2011	345 04 ~318	504호			
27	[국내학술기서] 대학도서관의 모바일 서비스 사례 분석 및 법 근성 문물에 관한 연구 / 구공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제45 권 제1호 (2011년 2월)	韓國文獻情報學會	2011	020.5 4 313 *	504호			

이러한 제약이 있는 이유는 원문 파일을 제공하는 주체에서 보낸 PDF 파일 형식이 각각 다른 데서 기인한다. 또한 TextPDF 자료라고 하더라도 국회전자도서관 내부 지침에 의해 이미지가 많은 자료는 음성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도서관에서는 음성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것 이외의 자료도 일부 음성지원이 가능하게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다양한 사용자 계층의 정보

접근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회의록시스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2) 적용 방안

회의록시스템은 PDF 파일 형태로 회의록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예산과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음성합성 엔진모듈을 선정해서 사이트에 적용한다면 ‘읽어주는 회의록’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몇몇 기업에서 문자를 말로 변환하는 음성합성 제품을 선보이고 있고 그 기술력 역시 뛰어나다.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파악·분석하여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거의 흡사하게 읽어준다고 하니 실현만 된다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 경로가 한층 다양해지는 것이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회의록이 TextPDF 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처음 음성합성 엔진모듈을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에서 음성합성 기술을 사이트에 접목하여 정보 접근 다양성을 제고한 예가 많으므로 회의록시스템에도 적용하면 시각장애인은 물론 한글을 읽는 데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등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다. 텍스트 파일 동시 제공

현재 회의록시스템의 PDF 파일은 컴퓨터의 환경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문서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해 주어서 원본과 동일한 문서를 볼 수 있고 인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약 시각장애인이 회의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음성 지원이 되지 않는 현 시스템상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다. 별도의 TTS³⁾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음성으로 변환해야 이용이 가능한데 PDF 파일 형식으로만 제공되는 현 회의록시스템에서 텍스트만 따로 추출하려면 별도의 변환 과정을 거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이 작업을 거쳐 텍스트 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읽어주는 회의록 서비스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회의록을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3) Text To Speech의 약자로 문자음성 자동변환 기술. 미리 녹음된 육성을 이용하는 현재의 음성 서비스와는 달리 문자를 바로 소리로 바꿔 전달하는 것.

또한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영상회의록으로 회의 실황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국회회의록도 편집이 용이하지 않은 PDF로만 제공되는 것에서 나아가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으로나마 텍스트 파일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별도로 이용하는 TTS 프로그램에 텍스트 파일을 바로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발언자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영상회의록과는 별개로 정제된 어조와 정확한 발음으로 회의의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텍스트 파일 형태의 회의록이 제공된다면 회의록을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국회영상회의록과의 연계

외국어 공부를 할 때 그 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말 자막으로, 그다음에는 그 나라 언어의 자막과 영상을 함께 보다가 비로소 그 나라 말을 자막의 도움 없이 소리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소리와 글을 함께 보면 이해에 훨씬 큰 도움을 준다는 방증일 것이다.

영상회의록시스템(<http://w3.assembly.go.kr>)은 국회 의정활동, 의원 공청회 사진 및 영상, 보도기사, 국회변천사 등을 수록하여 제공하는 국회 관련 사이트이다. 그중에서도 회의록시스템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소위원회 제외)를 녹화한 영상 콘텐츠이다.

이 영상 콘텐츠와 텍스트 콘텐츠인 회의록이 적절하게 연계된다면 사용자들이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청각장애인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글을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등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다.

지금 현재도 영상회의록시스템에서 원하는 회의의 영상을 선택하면 그날의 전체 회의록 파일이 PDF 파일로 지원되고 있다.

[그림 7] 국회 영상회의록 예시



위 그림은 2012년 5월 2일 제3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영상회의록 캡처 화면이다. 오른쪽 상단 ‘전체회의록’ 탭을 클릭하면 회의가 진행된 순서에 맞게 안건이 뜨고 각 안건을 클릭하면 그날의 전체 회의록 중에서 그 안건에 맞게 위치가 지정된 PDF 파일이 새 창으로 뜨게 되어 있지만 한 화면에서 동시에 영상과 텍스트를 비교해 가며 보기에는 불편한 구조이다.

또한 사용자들이 그날 회의 전체를 보기를 원하는 경우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싶은 특정 안건이 있어 영상회의록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일정’ 탭의 원하는 안건을 선택하여 그 안건에 해당하는 영상을 미리 지정한 후 ‘전체회의록’ 탭을 눌러 또 다시 원하는 안건을 선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경기도의회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8] 경기도의회 '회의록 같이 보기' 서비스



위의 그림에서처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영상만 제공하는 것과 영상과 텍스트를 같이 보는 ‘회의록 같이 보기’ 두 가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회의록 같이 보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뜬다. 한 화면에 회의영상과 그날의 안건 그리고 회의록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나오는 영상에 해당하는 안건의 회의록이 위의 화면에서처럼 자동으로 진하게 표시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회 영상회의록처럼 원하는 안건의 영상을 지정하고 별도로 회의록 탭으로 이동하여 또 다시 원하는 안건을 지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이 한 화면에서 원하는 안건만 클릭하면 영상과 회의록이 동시에 제공되니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훨씬 더 편리할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예처럼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도 별도의 탭 이동 없이 영상과 안건 그리고 회의록이 동시에 한 화면에 나오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점자회의록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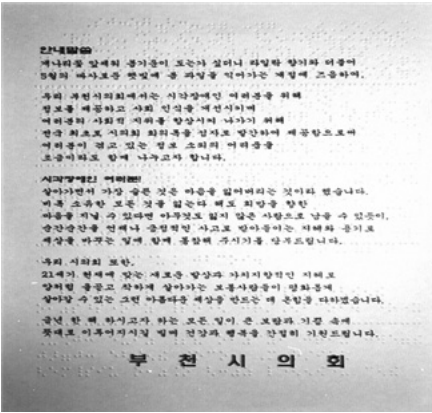
디지털 기술이 점자 발달함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음성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회의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전맹자의 경우 음성서비스를 접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PC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회의록시스템이나 PDF를 통한 음성서비스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점자회의록이다. 점자출력기만 구비되어 있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각장애인에게 국회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이면서도 상세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회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출력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텍스트를 입력하고 약간의 교정을 보면 점자로 출력이 되므로 이미 텍스트화 되어 있는 회의록의 특성에도 잘 맞다고 볼 수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의원에게 점자회의록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방대한 국회회의록을 점자로 모두 출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 해결책으로 점역비서를 고용하여 회의록을 비롯한 각종 회의 관련 문서를 점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받아 의정활동을 하였다.

부천시의회에서는 2005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점자회의록을 발간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부천시의회는 각종 정보로부터 접근이 제한됐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기초자치단체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점자회의록을 발간하였으며 의회와 도서관에 보관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

[그림 9] 부천시의회 점자회의록



4) 김찬형, 부천시의회, 점자회의록 1년째 발간 배포, 경기신문, 2006. 4. 19

내용과 분량이 방대한 국회회의록을 모두 점자로 발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관련 법안이나 예산 등을 다룬 회의만이라도 점자회의록을 발간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은 사실상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콘텐츠 제공은 전무한 형편이다. 국회회의록이 입법 과정에 많이 활용되고 국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기타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성은 자연히 보장될 것이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여 회의록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인다.

둘째, 읽어주는 회의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외국인 등의 회의록 접근 경로를 다양화한다.

셋째, 텍스트 파일을 동시에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 회의록이 활용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넷째, 영상회의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영상과 회의록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다섯째, 점자회의록을 발간하여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회의록 콘텐츠 제공을 늘려간다면 국회회의록이 정보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입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국회의정기록과 연구논문팀

이경식 손재옥 이순영 최윤정 박정현

최영림 유희정 김나영 류태문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국어표준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2011」, 서울, 2012.
- 남석훈, “국회종합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 「국회보」 제12호, 국회사무처, 1999.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2010.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4판」, 법제처, 2011.
- 윤대근, “국회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2011.
- 이성식 외, 「국회회의록 작성 편람」, 국회사무처, 2010.
- 이성일 · 조형석, 「웹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의 사회 ·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사례집」, 2009.
- 홍순관 외, “국회회의록시스템의 변천 과정과 발전 방향,” 「입법연구논문집」, 국회사무처, 2001.
- 경기도의회, “영상회의록” (2012년 6월 25일), <http://www.ggc.go.kr/New/record/menu03_01.jsp>
-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2012년 6월 4일), <<http://www.ggc.go.kr/New/record/index.jsp>>
- 국회도서관 (2012년 6월 20일), <<http://www.nanet.go.kr>>
-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2012년 6월 20일), <<http://dl.nanet.go.kr>>
- 대한민국국회,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2012년 6월 25일), <<http://w3.assembly.go.kr/vod>>
- 대한민국국회, “회의록시스템” (2012년 6월 19일), <<http://likms.assembly.go.kr/record>>
- 보건복지부 (2012년 6월 22일), <<http://www.mw.go.kr>>

대한속기협회의 탄생

김진기

—편집자 주—

이 글은 단기 4290년(서기 1957년) 8월 10일 간행된 『속기문화』 제4호에 당시 협회 감사이셨던 김진기 대선배님께서 ‘협회 명칭 변경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는 『대한속기협회』라는 이름의 탄생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기문화』는 1950년대에 속기문화의 보급과 속기인들의 친목을 위해 제5호까지 간행된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당시에는 『속기문화』 외에도 『일파학보』와 『고려속기학보』라는 속기 홍보 간행물이 있던바, 오늘날에도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가치 있는 글이라 판단하여 여기에 소개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그 특징의 하나로서 ‘커뮤니티’(단체)가 많음을 들 수 있다. 각양 각종의 단체가 각 지방마다 구성이 되어 이것이 민주정치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단체의 수가 많음에 따라 소지방단체로부터 중앙단체에 이르는 그 단체의 명칭은 일견하여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끔 명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체의 명칭이 그 성격을 완전히 나타내고 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단체에 있어서 과장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별문제라 하겠지만 영리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그 목적과 성격이 그 명칭 자체에 완전히 표현됨으로써 명칭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인 관계의 단체에서 만약 학술 연구의 목적이 이차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학술단체로 하였을 때 이에 접하는 사람은 곧 이 단체를 대내적인 학술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대인 관계에 놓여 있는 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이 항상 그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표현하고 있어야 비로소

그 단체의 소기의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것이다. 따라서 명칭에 있어서 그 성격과 범위가 달라졌을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지체 없이 명칭을 변경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체에 있어서 그 명칭이 가진바 의의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진대 여기서 술(述)하고자 하는, 『대한속기협회』의 금반 단행한 명칭 변경 역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과거 창립총회 이래 불리워진 『대한속기학술협회』라는 명칭이 거반 제2회 정기총회에서 이의 없이 ‘학술’ 2자를 삭제한 『대한속기협회』로 개명 통과된 것이다.

한편 단순히 생각할 때 명칭 변경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감상으로도 전자에 불리워 오던 이름이 좋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나 ‘학술’ 2자가 있고 없는 데 따라 이에 접하는 제삼자의 인상이란 완전히 다를 것이고 또한 그 생각하는 범위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본다.

지난날 창립총회 당시 『대한속기학술협회』라는 명칭이 어떠한 경위와 이유로서 붙여지게 되었고 또한 어떠한 의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기술함으로써 2년이 경과된 오늘에 와서 그 명칭을 변경치 않으면 안 되었다는 그 필요성과 이유에 대하여 이해와 충분한 납득이 갈 것이다.

처음 협회 명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협회 발기준비위원회에서부터였다. 여기에 제출된 명칭의 시안은 ‘대한속기문화협회’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명칭은 과거 6·25사변 전에 일파식에서 사용하던 협회의 명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 ‘대한’을 ‘한국’으로 고쳐서 ‘한국속기문화협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발기인 대회에 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발기인 대회에서 다시 명칭 문제가 논의되자 ‘한국속기문화협회’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이비 단체인 『한국속기자협회』와 동일시될 우려가 있다는 발기인 대회에서의 다수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대한’이라고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시초부터 ‘대한속기문화협회’를 반대하던 측에서 그대로 수락할 리도 만무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회 벽두부터 명칭 문제로 약간의 혼란이 야기된 바 있었다. 이에 절충안으로서 나온 것이 ‘대한’으로 다시 환원하되 ‘문화’를 ‘학술’로 수정하여 『대한속기학술협회』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목상에 있어서의 절충이지 사실상 절충이 아닌 전기한 2개의 명칭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새로운 명칭인 것이다. 단지 이것이 발기인 대회에서 별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은 발족 당초부터 파식(派式) 간에 명칭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거듭한다는 것이 협회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새로운 명칭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없이 무조건 양해가 되어 통과된 것이지만 본래 목적하였던 협회의 성격과는 약간 부합되지 않는 서운한 느낌을 갖게 하는 명칭이어서 이 협회 명칭의 변경에 대한 의도는 간단없이 회원 간에 일어나고 있어 결국 2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속기협회』로 개명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경위로서 변경된 신명칭과 구명칭 간에 어떠한 차이를 그 성격상 내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과거의 명칭에 익숙해진 회원 간에는 썩이나 의문시되고 있을 것이다. 『대한속기학술협회』라고 할 것 같으면 협회의 현장과 발기 취지에 대하여 전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첫째로 느껴지는 것이 이것은 순전히 대내적인 속기학술만 연구하는 단체로서 인식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협회 현장에 규정되어 있다시피 속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란 이차적인 문제이고 목적이며, 어디까지나 일차적인 목적이란 속기문화의 발전과 속기인의 권익 옹호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속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협회에서는 각 파식에서 연구된 그 내용에 의하여 법식 간에 장단점을 상호 교환하는 그 이상의 뚜렷한 연구는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연구란 어디까지나 각 법식에 국한되어 행해지는 순전한 대내적인 문제이므로 협회에서의 학술 연구란 부서는 협회 산하에 둘 수 있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협회의 전 성격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러한 스케일에서 신명칭과 구명칭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대한속기협회』라 하면 구명칭과 같은 일방적인 협회의 목적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열거된 전 목적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이 산하에는 제 분야의 각기 분류된 기구를 또한 설치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한국의 속기인을 총망라하여 아국의 속기문화를 정상적으로 향상 발전시킨다는 그 목적 자체에 완전히 부합되는 명칭이라 하겠다.

단체에 있어서 그 명칭이 지닌바 의의가 크다고 할진대 금반 변경된 『대한속기협회』는 일면에 있어서 본 협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요, 타면에 있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분야로 발전되어 갈 전도를 뜻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속기사의 눈으로 본 임시의정원

이 정 윤 기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위 문장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첫 머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두면서 시작한다. 고등학교 시절 국사를 공부할 때 상해 임시정부가 중심축이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는 내용으로 알았다. 그런데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살펴보았더니 임시정부에는 입법부의 기능을 한 ‘임시의정원’이 공존하고 있었다. 더욱이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탄생했고,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통치되었으며,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지탱되었다. 마치 현재 우리 국회의 역할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금시초문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네 역사교육이 대통령제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의정사와 관련된 연구가 빈약하여 생긴 인식의 공백이 아닌가 싶다.

임시정부의 산실 - 임시의정원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전후하여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널리 퍼지면서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이러한 낙관적인 분위기를 틈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야만적인 통치에 대한 불만이 ‘대한독립만세’라는 구호로 터져 나왔다. 비록 3·1운동이 일제의 잔학한 탄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로 인해 독립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민족의 열망을 각성하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국내 한성과 함께 소련령 연해주, 상해에서도 정부들이 조직되었다. 이 중에서 상해 임정을 중심으로 통합운동을 전개하여 1919년 9월 11일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했다. 이 소식은 일제의 지배하에 신음하는 한국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임시의정원 회의는 1919년 4월 10일 저녁 10시에 처음 소집되었다. 회의 장소는 중화민국 상해 프랑스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에 위치한 2층 양옥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29명이었다. 이들은 이동녕과 손정도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계속된 회의 결과, 이승만을 수반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주지하듯이 이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였고, 이로써 복벽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한 말부터 싹튼 국민주권사상이 현실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11일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정해졌다. 그밖에 대한민국 임시헌장(10개 조)도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들여다보면,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한다”라고 하여 임시의정원의 위상과 성격을 규정하였다. 제10조에서는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회’라는 명칭의 유래도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임시의정원은 해방 후 정부 수립까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1919년 4월 11일 제1회 의정원 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1945년 8월 17일 마지막 의정원 회의 때까지 모두 39차례에 걸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1919년 4월 25일에 열린 제3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임시의정원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의정원 성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에 따라 의정선거법도 제정되어 각 지역의 인구 30만 명에 1명씩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 결과 경기·충청·경상·전라·함경·평안도에 각 6인씩, 황해·강원도에 각각 3명씩, 중국령·소련령·미국령에 각각 3인씩을 뽑아 국내의 42인과 국외의 9인 등 모두 51인의 의원을 두도록 했다.

1919년 9월에 개최된 제6회 회의에서는 임시헌법의 개정(제1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제1회 의정원 회의에서 제정된 임시헌장이 조금하게 만들어졌고, 내용도 10개조만으로 이루어져 매우 소략하였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개정된 임시헌법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기념촬영
(1919년 9월 17일)
「출처: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은 임시정부가 광복을 맞을 때까지 거치게 되는 다섯 차례 개헌 가운데 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사실상 헌법의 제정과 마찬가지로였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라고 규정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밝혔다. 실제

로 사법권이 독립된 적은 없었지만, 의정원은 국정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동시에 국무위원 임명 동의권과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임시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행정부에 대한 의정원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시의정원의 노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초기 상해 임정은 파리강화회의에 기대를 걸고 외교활동을 벌였으나 열강의 무시로 실패하면서 곤란에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신년축하식 기념촬영
(1921년 1월 1일)

「출처: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봉착했다. 이때 레닌의 소비에트 정부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임정을 개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리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주장하는 박은식, 신채호 등이 앞장서 임정 개조운동이 일어나 1923년 1~6월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레닌 사망 후 소련의 지지 철회로 임정을 개조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게다가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1925년 대통령직에서 탄핵 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상당한 자금을 동원했던 이승만이 축출되자 임정은 극악한 재정 상태로 몰리게 되었다.

임시의정원이 침체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된 것은 1940년 9월 중국 국민당정부의 임시수도인 중경에 정착한 뒤였다. 이 시기에는 좌익으로 분류되는 소속원들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함으로써 임정을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임시정부가 3·1운동 이래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임정은 1940년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좌파)를 통합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중국공산당과 연합하여 중국으로 침략해 들어온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며 조국의 해방을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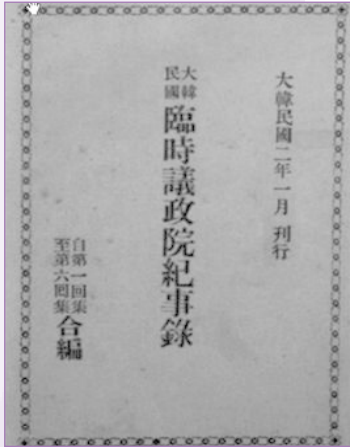
일제의 패망 후 이를 뒤인 1945년 8월 17일에는 중경에서 마지막 임시의정원 회의(제39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좌파인 조선민족혁명당은 국무위원의 총사직과 의정원의 권한 정지 등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주석인 김구와 한국독립당은 이러한 제의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들은 1919년 4월 임시의정원이 첫 소집되었을 때의 구상대로 광복 이후 정식 국회가 구성되면 의정원을 해산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들의 소망은 1946년 2월 ‘비상국민회의’의 소집으로 연결되지만 이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를 수립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1948년 5월 31일에 열린 제헌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했다. 비록 이것은 다분히 명분론적인 것이었지만, 분단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녔다.

임시의정원이 남긴 기록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문서

여기까지 임시의정원의 자취를 숨 가쁘게 뒤쫓아 왔다. 그러면 속기사들은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품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역사는 어떻게 밝혀졌는가? 혹시 당시에도 속기사들이 생산한 기록이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질문에 성에 차지는 않지만 현재 학계에서 연구해 놓은 바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임정은 해방 이전 27년간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많은 문서들을 생산해 냈다. 임시의정원 또한 그들이 남길 기록이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치 조선시대의 왕조 실록과도 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하였다. 임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1919년 9월 15일에 결의된「임시의정원 비서국 처무(處務)규정」을 보면, 비서국은 의장의 직속기구로서 의사과와 서무과로 나뉘었다. 당시 의사과의 담당업무는 ①의사일정 및 순서 작성, ②속기 및 의사록 작성, ③전체회의 및 각 위원회에 관한 사항, ④접수한 의안·질문서·청원서 및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서무과에는 ①일체 문서의 수수(收受)와 발송에 관한 사항, ②문서의 정서(淨書)와 편철(編綴) 보존에 관한 사항, ③의원 및 직원 진퇴에 관한 사항, ④원(院)의 예산·결산 편성에 관한 사항, ⑤경비를 정리하는 사항 등이 업무로 배정되었다. 그러니까 비서국은 의정원의 제반 기록을 정리하고 관리·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던 것이다.

임시의정원의 기록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회의록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1920년 3월 5일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사록(1919년)
「출처: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제12회 속기록(1924년 5월)
「출처: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의결된 「임시의정원 기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정원에는 5종의 기록부-즉 속기록, 의사록, 비밀회의록, 전원위원회록, 기사록-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속기록의 경우 당일에 간행하여 다음날 의원에게 배부하면 의원은 24시간 내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미루어 속기록이 가장 자세한 1차 기록이며, 의사록과 기사록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임시의정원의 기록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남겨졌다.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거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상해 주재 일본영사관 경찰부는 프랑스조계에 위치한 대한교민단 사무소를 급습했다. 당시 프랑스 영사관에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어 임시정부 요인들은 대부분 피난할 수 있었지만 수많은 문서와 서류 등이 압수당하였다. 그것들 대부분은 임정 관계 문서들이었다. 일제 측은 여기에서 탈취한 문서에 근거하여 『조선민족운동연감』을 만들었다. 이 연감에는 교민단 사무소에서 압수해 간 문서들의 목록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정작 그 문서들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후 1945년 11월 임정 요인들은 중경에서 환국할 때 중요한 문서들을 챙겨 13개의 커다란 가

죽상자에 담고 왔다. 이 가운데 임시의정원과 관계된 것이 세 상자였다. 이들 문서는 주석 김구의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된 경교장(京橋莊 - 서대문 충정로 소재)에 보관되었다가 그의 사후 성북구 돈암동 조남직(趙南稷) 家로 옮겨졌는데, 한국전쟁 때 사라졌다고 한다. 목록마저 공개되지 않았던 이들 문서의 행방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임시의정원 문서들은 1946년 2월 비상국민회의가 생긴 이후 잠시 회의 사무실에 보관되다가 홍진(洪震) 家로 옮겨져 보존되었다. 이 문서를 홍진 의장의 영손인 홍석주 선생께서 1967년 3월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 연유로 국회도서관과 학계에서는 홍진 의장에 대한 예우로 이를 ‘홍진문서’라 혼용하여 부르기도 한다. 홍진문서는 임정 후반기, 즉 1931년 이후에 생산된 것들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문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한 문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귀중한 임시의정원 문서는 지금은 국회도서관 수장고의 오동나무 상자 안에서 숨 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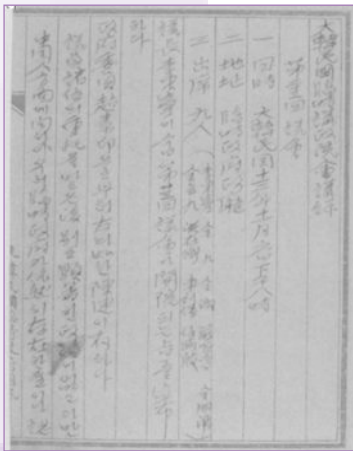
임시의정원이 생산한 문서들은 홍진문서 외에도 한국연구원에 소장된 1919년도 기사록-이 자료는 임시정부의 성립 및 개조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과 당시 신문이나 공보에 수록되었던 임시의정원 관계 기록들이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임시의정원의 회의록이 가장 가치 있는 사료라고 입을 모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꼽는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 과정을 보여준다.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다수의 임시정부가 조직·선포되었지만 ‘정부’로서의 실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그 정부의 조직주체와 성립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에 내각과 의회를 갖춘 정부는 오직 상해 임정뿐이었다.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이 있었기에 상해 임정이 탄생할 수 있었고, 임시의정원의 기록이 있었기에 상해 임정은 3·1운동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천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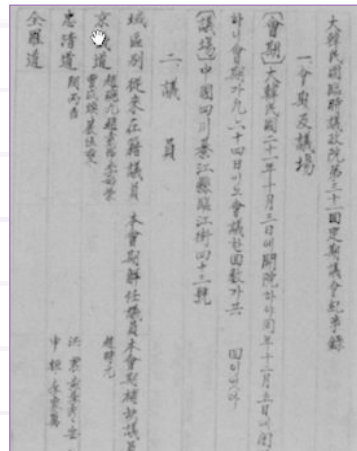
둘째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제정과 그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에 임시헌장을 제정한 후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즉, 이러한 개헌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독립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임정의 지도체계를 바꾸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임정이 어떻게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탱해 올 수 있었는가를 살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임시의정원 스스로 한국독립운동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자임하고 그 소임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셋째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제반 활동상과 더불어 주요 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문서들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특히 의정원 회의의 현장기록인 속기록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담고 있어 의정원에 참여한 인물들의 연구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정원 회의록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의회정치’의 실험을 보여주는 기록들이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본다면 임시의정원 문서(특히 회의록)는 임정이 남긴 기록들 중 가장 다채롭고 중요한 문서였다고 할 수 있다.



임시의정원 제23회 회의록(1931년 11월)
「출처: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임시의정원 제31회 정기회 기사록(1939년 10월)
「출처: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속기사 없는 곳에 역사도 없다’

이번 기자수첩 활동은 필자로 하여금 피상적으로 느껴졌던 속기사로서의 사명감을 한층 더 깊이 각인시켜 주었다. 속설에 따르면 ‘기자 없는 곳에 사건도 없다’고 한다. 그만큼 기자가 현장에 없으면 사건이 사람들 모르게 묻혀 간다는 뜻일 것이다. 이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속기사가 속기를 하지 않으면 기록도 생산되지 못할 뿐더러 그 정부의 정통성마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속기사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견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소회가 가슴을 스친다. 격동적인 독립운동의 중심에서 묵묵히 속기를 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아마 이승만, 안창호, 신채호, 박은식, 김구 등 기라성같이 쟁쟁한 독립투사들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하며 그분들의 언행에 대해 존평을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처럼? 국회 속기와 선배님들이 제헌국회 시절부터 계셨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글로 인해 의회 속기사의 시초가 임시의정원까지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홍진(洪震)선생의 생애



임시의정원 의장을 세 차례 지내시고 국무령까지 역임하신 홍진 선생은 1877년 8월 27일 서울 차동(현재 서소문)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홍면희(洪冕熹)였으나 43세가 되었을 때 중국 상해로 망명하기 위하여 압록강을 건너며 이름을 진(鎭)으로 바꾸고 이후 국무령에 취임하면서 이름을 다시 진(震)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꾼 것은 아마도 일본정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홍진은 1898년 법관 양성소를 졸업하고 한성 평리원 주사를 거쳐 1899년 평리원 검사로 부임하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다. 그 후 홍진은 1905년 충청북도 충주 재판소 검사로 전임되었다. 당시 홍진의 신분은 조선통감부 소속의 검사여서 일제에 반기를 든 의병들을 기소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항일 의식이 투철한 홍진은 편법으로 요령껏 목살 또는 감형하는 방편을 취하였다. 1910년 한국이 일제에 의하여 강점되자 의병 사건에 대한 논고를 거부하고 검사직을 사임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인가장을 받아 서울과 평양에서 활동하다 3·1운동에 적극 가담한 뒤 국내에서의 임시정부인 한성정부를 수립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 그 후 일제의 추적이 집요해지자 한성정부 조직표와 조각명단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중국 상해에 도착한 홍진은 국내에서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임시의정원의 법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 초기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법률의 제정 등 근대적 법치의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1926년 7월 8일 50세의 나이에 제4대 국무령에 취임하였다.

홍진 선생은 1942년 10월 26일 중국 국민당정부의 임시수도였던 중경에서 제34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여 제17대 의장에 선출되었다. 광복 후 선생은 1945년 12월 2일 임정 요인의 제2차 환국으로 귀국하였지만 당시 국내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의되고 있는 등 불안의 연속이었다. 1946년 2월 선생은 반탁운동단체인 비상국민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반탁운동과 건국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해 9월 9일 심장 천식증으로 향년 70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으며, 9월 13일 명동의 천주교성당에서 장례위원장 김구 집례로 인천시 관교동 선영에 안장되었다. 그 후 1984년 인천에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으로 이장되었고, 다시 1994년 10월 6일 동작동 국립묘지 임시정부요인 묘역 내 임정수반 묘소로 천장되었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200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 2005.

2. 학위논문

서희경, 『독립운동과 정치-임시의정원 회의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3. 정기간행물

이흥용,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문서와 홍진 의장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보 제47권 제4호 통권 제370호(2010. 5.)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보 통권 제440호 (2003. 6.)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성격」, 지식산업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집(1991. 4.)

양영식,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연구(1919~1925)」,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1988. 11.)

속기인을 위한 화합의 장, 2012 제20회 속기학술세미나!

이 태 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개원을 맞이하기 전 5월의 따스한 중순, 대한속기협회 제20회 속기학술세미나에 다녀왔다.

속기학술세미나는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한국자막방송, 학원커뮤니티, 경상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제주도의회, 용인시의회, 전국 여러 속기사무소 등 전국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로 입사하기 전부터 세미나에 대해 익히 들어 왔고 국회 조직의 일원이 된 이후 처음 치르는 공식 행사여서 나의 마음은 매우 긴장되고 떨렸다.

세미나 전날인 5월 14일, 선발대로 뽑힌 나는 다른 회원들보다 하루 먼저 세미나장으로 향했다. 사전 현장 답사와 이동경로 파악 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입 회원인 나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전국의 많은 속기인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잘하리라 다짐하며 차에 올랐다.



아쉽게도 전날까지 화창했던 날씨는 온데 간데없고 가는 내내 굵직한 가랑비가 차창을 두드렸다. 세미나 일정 중에 휴양림 관광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비가 그치지 않으면 행사에 차질이 생길까 봐 내심 조바심이 났다.

우리 선발대는 폭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뚫고 약 두 시간여를 달려 회원들이 다음날 숙소에 가기 전 점심 식사를 할 식당에 도

착했다. 식당에서 세미나 장소인 리솜 오션캐슬까지의 도착 시간과 거리 등을 체크하는 것도 선발대의 임무! 이 밖에도 해야 할 임무는 많다. MISSION IMPOSSIBLE!!

숙소에 도착해서 서둘러 짐을 풀고 먼저 근처 마트로 장을 보러 갔는데 선발대가 준비해야 할 물건은 생각보다 꽤 많았다. 객실만 35개, 총인원 170여 명이라 각 방에 비치할 생수를 사는 것만으로도 차가 꽤 찼다.

그렇게 가랑비를 맞아 가면서 장을 다 보고 숙소에 도착한 후 생수를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는데 웬지 흐뭇했다.

정리를 마치고 그제야 숙소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 서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리조트였다. 탁 트인 전망을 보니 2박 3일 세미나 일정 동안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만 같았다.

바깥에는 비록 비가 많이 왔지만 수영장에는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마침 ‘굿바이 마눌’이라는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주연 배우인 류시원, 홍수현 뒷자리에 서 식사도 할 수 있었다. 사인이라도 받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우리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최종일에 들를 휴양림을 답사했는데 막 비가 그친 후라 그런지 날씨도 화창하고 기분 좋은 소나무향, 새소리가 참 인상 깊었다.

그 후 바로 손님들이 도착하셨다. 170여 명의 손님들, 처음 뵙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연세가 지긋하신 원로 선배님들부터 이제 막 속기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은 앳돼 보이는 분들까지, 처음 뵙는 자리였지만 속기라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4시부터는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1교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님의 강의였는데 지방의회와 국회에 대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유익한 시간이었다.

어느덧 4교시에 걸친 강의를 모두 끝나고 맛있는 식사가 시작되었다. 뷔페식이었는데 열심히 일해서인지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리를 옮겨 가면



서 답소도 나누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가 끝나고 시작된 2부 행사,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흥의 시간, 세미나 장기자랑. 두둥!

사회자는 이동준 계장님이셨는데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하셔도 될 것 같았다. 진행도 잘 하시고 간간이 농담도 섞으시면서 진행하시는 모습이 정말 국민 MC 유재석이 따로 없으셨다.

차기 사회자로 지목된 정현석 회원의 노래로 시작된 장기자랑은 나의 ‘보고 싶다’ 열창, 학원 커뮤니티 원생들의 노래자랑, 이경식 이사장님의 춤과 간찬기 이사님의 열정적인 무대 매너까지 이어졌다.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노래인 노사연의 ‘만남’ 이었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중앙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불렀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속기’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하나가 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숙소에서는 선후배 간의 격의 없는 술자리가 이어졌다. 평소에는 말 붙이기 어려운 선배님들께서 사랑과 격려의 술잔을 내려 주셨고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잔을 비웠다.

선후배 간의 진솔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입사하기 전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정말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우리 모두는 숙소를 나섰다. 모두들 버스에 오르기 전 기념 촬영을 했는데 동기들, 선배님들과 촬영한 첫 번째 단체사진이어서 그런지 국회에 들어온 후 소속감이라는 것을 처음 느

껴 보았다. 일정 내내 사진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숙 선배님의 자세가 마치 프로 같았다.

그리고 찾아간 곳은 휴양림!

나는 안내를 맡았는데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틀 동안의 긴장과 설렘이 한 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다.

산책을 마친 후 계곡지로 점심 식사를 하고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는 곳은 다르지만 속기라는 직업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한민국 속기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하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내년, 내후년 세미나에도 꼭 선발대가 되어 조금이나마 세미나 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욱더 많은 속기인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좋은 행사였다.





속기인을 위한 화합의 장,
2012 제20회 속기학술세미나!

속기는 나의 인생



한 기 수

- 속기와의 인연

25세에 9급 국회 속기사로 합격하고 꼭 26년 만인 2012년에 오랜 기다림 끝에 고대하던 5급 속기사무관으로 승진이 되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속기와 인연을 맺은 지도 어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속기가 내 생애 전부라고도 할 수 있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정상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차에 우연히 형님으로부터 국회 속기사는 직업(그 당시에는 회귀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종로에 있는 동방속기학원에 등록하였고 그것이 나의 평생 직업이 되었다.

- 승진의 기쁨

사무관 승진 후 1년이 지났다. 작년 이맘때 여러 선후배 직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랜 숙원인 사무관에 승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저를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지만 직장에서의 승진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친지에게 커다란 행복과 즐거움이고 또한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만족감과 자존감을 동시에 안겨 준다. 그동안 집사람에게는 우리 과 조직 특성상 승진 자리가 많지 않아 승진하기가 쉽지 않다고만 얘기를 했던 터라 그 기쁨은 더 했으리라. 그동안 내 말만 믿고 기다려 준 아내에게 이 지면을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선배들의 얘기에 의하면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번의 승진을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때는 사무관 승진이라고든 한다. 그만큼 사무관이라는 자리는 모든 직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누구나

그 자리를 원하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높은 벽과도 같은 자리이기도 하다.

나는 승진 발표가 있는 후 만감이 교차했다. 물론 오랜 기다림 끝에 성취한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때의 솔직한 심정은 이제 이런 치열한 승진 대열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를 써야 했던가 하는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 신입관리자 연수

승진의 들뜬 마음도 잠시, 승진 발표 후 그다음 주부터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6주간의 신입관리자 연수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승진자는 우리 과 3명을 포함해서 행정·기술·전산직에서 총 19명이었다.

교육일정은 신입관리자의 역할과 자세, 공직자로서의 역사관과 사명감, 리더십 과정, 논리적인 글쓰기와 말하기, 현장체험, 교양강좌, 봉사활동 그리고 국회법과 법제과정 등등으로 구성되고 마지막 주에는 모두가 고대하는 해외현장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현장체험 중 경북안동 하회마을 입구

선배들께서는 신입관리자로서 갖추어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역할에 대해 진심 어린 충고와 애정 어린 당부를 아끼지 않으셨고, 성취감에 들뜨고 조금이나마 마음 한구석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나를 다시 일깨우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고, 신입관리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다.

낮에는 교육받고 퇴근 후에는 그동안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느라 5주간의 교육일정이 쏠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해외현장훈련 과정만 남게 되었다.

원래 해외일정은 8박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항공기 시간 등을 감안하여 10박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여행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결정되었다. 나는 이탈리아는 몇 해 전에 가본 적이 있지만 스페인은 처음이라서 기대가 컸다.

평소 축구를 생활화(?)하고 있는 나로서는 내심 축구의 나라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여행 중에 혹시

스페인리그 바르셀로나 팀에서 뛰고 있는 리오넬 메시, 아니 바르셀로나 축구경기장 앞에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결국 일정이 맞지 않아 그마저도 허사로 돌아갔다.

여행을 다녀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어느 도시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 건물, 마치 살아 있는 듯한 얼굴 표정과 근육까지 미세하게 조각한 인물조각상, 하얀 벽면과 황갈색의 지붕이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룬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 한때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화려한 정원과 유적지, 고대 유물을 간직한 박물관, 평화롭고 목가적인 들판과 마을 등이 생각날 뿐이다.

당시 여행 중에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 스페인은 관광과 농업이 주 수입원이고, 세계 1위



의 올리브유 생산국답게 남부지방은 띄엄띄엄 있는 마을을 제외하고는 들과 산 모두 올리브나무로 채워져 있었다. 스페인에서는 올리브나무 한 그루면 3대가 먹고산다고 할 만큼 하늘이 내려준 귀한 선물로 여긴다고 한다. 올리브 발이 우리나라의 면적과 맞먹는다고 하더니만 차를 타고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저렇게 많은 열매를 짦는 시기에 어떻게

수확할까 궁금했는데, 수확기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기비자를 내주고 데리고 와서 열매를 수확한다고 한다고 하니 수확기에는 어마어마한 인구의 이동이 있으리라 짐작이 된다.

그리고 현지 식당에서 갓 구워낸 빵에 발사믹 식초 몇 방울 섞은 신선하고 고소한 올리브유를 듬뿍 찍어서 먹었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스페인의 대표적인 춤인 플라멩고는 소의와 박해를 받았던 집시들의 고달픈 삶을 음악과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절도 있고 빠른 2박자 리듬의 손뼉박자와 강렬하고 현란한 발 구름, 비장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에 가득 찬 얼굴 표정, 화려한 의상과 애절한 몸짓, 단조롭지만 울분을 토해내는 듯한 기타 선율, 알아들을 수 없는 고



스페인 플라멩고 전용 소극장

음의 흥얼거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듣는 내내 나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는 힐링을 체험한 무대였다. 악보도 없이 즉흥적이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연주되는 듯하지만 플라멩고의 리듬은 6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혹시 스페인을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플라멩고를 보기를 강력 추천하고 싶다.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다가 싶었는데 어느새 돌아올 날이 다가오니 은근히 마음 한쪽에서 ‘내가 과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과 걱정이 밀려왔다.

- 새내기 계장 생활

계장으로서의 첫 출근의 느낌은 학교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웬지 모르게 늘 다니던 사무실이 낯설고 직원들 대하기도 서먹서먹하고, ‘계장님’이라는 호칭도 부담스럽게만 들리고 때론 거리감마저 느꼈다.

승진 이후 매주 월요일에 과회의에 참석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록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긴급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모여 회의를 하고, 담당 위원회 회의상황 모니터링 및 속기시간을 배정하고, 수시로 걸려오는 민원성 속기록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업무과정표를 작성하고, 틈틈이 밀려 있는 원고를 취합·검토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계장이 되고 나니 먼저 되신 선배 계장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 앞으로의 다짐

아직 신입사무관이라 여러 가지 서툰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과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승진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해 마지않는다.

대기만성을 꿈꾸며

박 우 찬

누구에게나 방황의 시기가 있는 것처럼 나 역시 20대는 방황의 시기를 보낸 것 같다. 편입 공부에 매달려 남들보다 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 보겠다면서 다니던 회사를 접고 호주에서 워킹 생활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내 나이 30세.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나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다. 퇴원 후 당장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냐니 너무 늦은 것 같아 두렵고, 전공과도 상관없고 더군다나 내 발로 뛰어나왔던 전 직장을 다시 갈 수도 없었다. 그런 고민을 할수록 마땅한 목표도, 꿈도 없던 과거에 대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곤 했던 시절이었다.

비록 사회생활에 발을 담가 보긴 했지만 내세울 만한 기술도, 능력도 없었기에 당장 취업하기 보다는 기술을 배우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여러 직업을 알아보며 고민하던 와중에 TV 속 국회 본회의장 속기사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 호기심으로 인해 2008년 12월, 나의 속기 인생이 시작되었다.

속기 입문 과정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학원 원장님도 그 당시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음을 강조하시며 권유하지 않는 눈치였고—물론 나이와 속기 실력이 상관이 없음은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며 수없이 느껴 왔던 사실이다. 단지, 그 시절 그 학원에는 내 또래가 거의 없었다—다음 해 9월에 1급을 따겠다고 장담했다가 3급이라도 따라고 면박을 당하기도 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기간이 속기를 시작해서 국회에 들어오기까지의 시기였던 것 같다. 그저 무식하게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속기에만 매달렸다. 그전에 모아 두었던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팔과 어깨는 파스 자국으로 도배되고, 친구들과의 연락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나름의 절실함이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덕분에 2009년 9월 2급 취득, 다음 해 상반기에 1급을 취득할 수 있었다.

흔히들 ‘장시간 연습한다고 속기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나 역시 그런 고민을 해 봤기에 그 생각이 옳다, 그르다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 단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자격증 취득이 절실했고 국회에 대한 갈망이 컸기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속기에 투자한 것이었다. 몸이 힘들고 지칠 때는 재미있는 내용의 책 등을 부담 없이 치거나 하면서 한 글자라도 더 치려고 노력했다. 비록 처음 장담한 기간 내에 1급을 취득하진 못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목표 의식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는 데 큰 도움이 된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1급 취득 후 가장 급한 것은 돈이었다. 알 사람은 알겠지만 1급을 취득하고 나서도 취업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백수와 다름없고, 대부분 성인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 나 역시 국회에 뜻을 두고 있었지만 마냥 공부만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그때 학원 원장님으로부터 강사 제의가 들어왔다. 속기에 관한 일이면서 경제적 상황도 해결하고 틈틈이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강사 업무와 병행하면서 공부에 전념했다.

초보강사 시절에는 업무에 적응하느라 공부 또한 수박 겉핥기식이었다. 그해 시험은 과락이 한

과목밖에 없다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어느덧 강사 생활도 6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좀더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다. 하루 12시간 학원에 상주하고 강의하면서 짬을 내고 학생들 진도를 조절해 가면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했다. 또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단어를 외우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하나, 저런다고 머리에 들어오나’ 라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내가 그렇게 해 보니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유용함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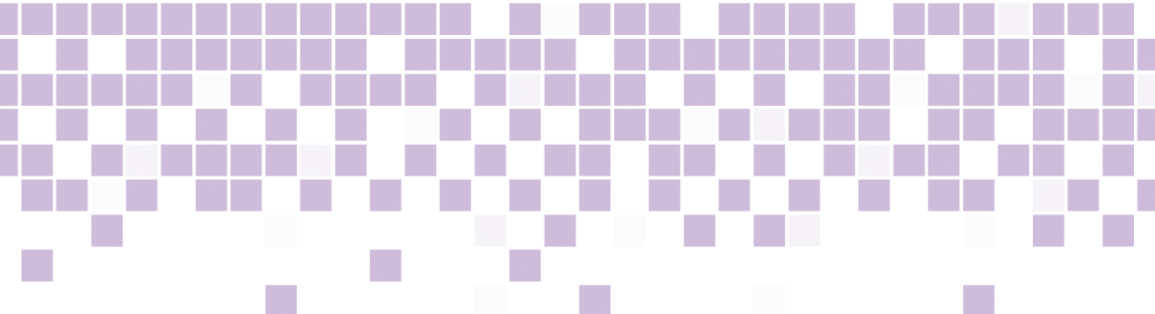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를 했지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남들은 어떻게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그 사실이 항상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물론 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본다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알게 된다고 불안함이 안도감으로 바뀔 것 같지 않아 그저 내 방식대로 꾸준히 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 같다.

그 덕분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난 그해 생각보다 높은 점수로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팔을 벌벌 떨면서 임했던 실기시험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절대 자만하거나 마음을 놓진 않았다.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비 면접도 여러 차례 보았다. 하지만 면접 당일, 첫 질문부터 누구보다 경직된 얼굴과 부정확한 발음으로 두서없이 말하는 내 모습에 자신감을 잃었고 예상대로 그해 합격자 명단에서는 내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낙방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국회를 보고 시작했고 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기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열심히 할 자신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이미 훌쩍 지나 버렸기에 더 이상의 공부는 부모님께 폐가 될 것만 같았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자 조금씩 불안감이 생겼고 또 한편으로 ‘한 번 면접까지 붙었으니 당연히 또 붙겠지’라는 주위의 기대감이 너무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다른 취업처나 창업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던 내가 다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과 학원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지인들



의 응원 덕분이었다. 때문에 합격 문자를 받고 나서 처음 드는 생각이 ‘공부는 혼자 해도 합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다. 끝까지 믿어 주신 부모님, 강사 업무를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원장님, 시험에 대해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친구들, 마음으로 응원해 준 수강생들 등등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

‘The oldest 신입’이 현재 나의 이미지다. 혹자는 나에게 ‘그 나이에 잘 적응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가장 진부하지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대답을 해 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며, 노력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노력하고 더 잘하기 위해 열정을 쏟는다면 업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험생이 아닌 국회속기사로서 국회 정문을 통과하던 첫 출근일, 사람들의 몸을 움츠리게 했던 차가운 바람이 나에게서는 매우 시원하고 신선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남들에게는 차가웠지만 나에게서는 신선했던 그 바람처럼 나 또한 낡고 오래된 느낌의 ‘oldest’가 아닌 신선하고 늘 노력하는 ‘fresh한 oldest 신입’으로 기억되기 위해 지금 이 합격수기를 쓰는 순간에도 그때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마부위침(磨斧爲針)하니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예 산 해

마트에서 고기를 팔던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헉헉!! 며칠 전 의정기록과 선배님으로부터 합격수기를 써 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수험생활 중에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보면 힘이 되었던 그 합격수기를 써 내려가는 내 자신이 뿌듯하고 대견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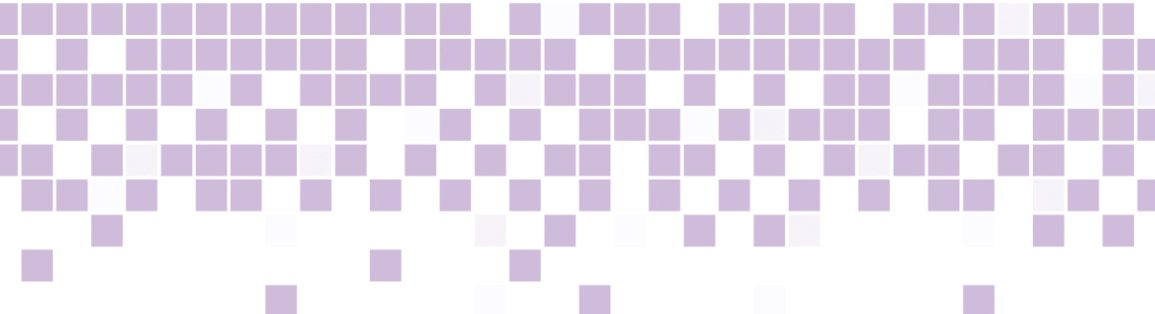
2003년 군대를 전역한 후 첫 아르바이트로 롯데마트 양념코너에서 ‘고객님, 두 근에 만 원’ 하며 고기를 팔던 나에게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에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소소한 보람 덕분에 대학교에 복학을 하기보다는 이 길로 나가볼까도 심각히 고민했었다. 사실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나는 졸업 후에 전공을 살려서 일할 자신이 없었을 뿐더러 크게 흥미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에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현재 국회 선배이자 친구인 의정기록1과에 근무 중인 이○○의 소개로 같이 속기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

나는 상담을 받으면서 흥미를 느꼈고 ‘일단 배워서 나만의 자격증을 따 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었다. 친구는 처음부터 국회를 목표로 해서 배웠고 시간이 지난 후 친구는 목표했던 바대로 국회에 먼저 들어가게 됐다. 그런 친구를 보면서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었던 나도 속기사무소와 학원 강사를 거치면서 국회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나의 수험생활은 2008년에 처음 시작되었지만 2010년 필기 합격까지 일과 공부의 병행으로 좀처럼 시험에 대한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일을 핑계로 공부를 끈기 있게 하지 못했던 것이 불합격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다.

하지만 2010년 필기시험 합격 후 알게 된 원인은 정말 다른 데 있었다. 바로 실기가 문제였다.



실기는 항상 마음으로만 자신 있었지 연습을 게을리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실기에서 떨어진 후 매일매일 연습했고, 주위의 먼저 합격하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의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커져 가기만 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나서야 2012년에 하던 아르바이트와 일을 그만두고 수험공부에만 매진하기로 맘먹었다. 물론 수험생활을 위해 필요했던 돈은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받아서 공부하였다. 왜 그렇게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수험생활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용돈을 받아서 1년이라도 더 빨리 합격하는 길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지름길인 것을 몰랐다.

부끄럽지만 필기와 실기, 면접까지 5년 동안의 긴 수험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합격 수기를 쓰면서 수험생활 동안의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쳤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한순간의 일인 듯하다.

그렇게 최종 합격 후, 2013년 1월 의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2월에 국회사무처 의정기록2과 6담당에 근무 명을 받고 국회속기사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수험생활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국회속기사로서 업무를 하러 처음 전체회의에 들어갔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무슨 말을 듣고 속기를 하고 나왔는지 모를 정도였다.

회의장에서 처음 들었던 생소한 단어들과 상황 파악, 대처 능력이 필요하겠더라는 그때의 생각은 아직도 정신을 번쩍번쩍 들게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배울 게 무척 많다는 느낌이기도 해서 또 한 기분이 정말 설렌다. 누가 말하지 않았던가, 배워 가는 기쁨이야말로 정말로 즐겁지 아니한가!

또한 국회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정부가 정권교체 시기여서 나는 오자마자 한 달 동안 인사청문회에 정신없이 들어가서 원고를 작성해야 했다. 내가 작성한 이 원고들을 현재대는 물론 후세대에서도 볼 수 있다는 책임감에 또 한 번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리고 내가 원고 작성 중 안 들렸던 부분을 주무님께서 이내 한 번만 듣고 작성하시는 것을 보

면서 신기하고 대단하게만 느껴졌다. 내가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들리는 대로만 치려고 했지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런 부분은 내가 배워야 할 부분 중의 극히 일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나는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노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능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회속기사이니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게 도와주었던 친구, 형, 학원 원장님께 이 글로나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나 또한 여기 없지 않았을까 하는 고마운 마음은 앞으로도 잃지 않을 것이다.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김진주

〈첫 시각〉

나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돌이켜 보건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치열했던 시기는 다른 아닌 질풍노도의 시기, 이른바 사춘기였던 것 같다. 뜨겁게 내 자신을 사랑했고, 미치도록 중오했으며, 열심히 자아를 탐구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아픈 청춘을 맛보기도 전에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쓰라린 청소년기를 보냈다.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고민들 중 나를 오랜 시간 괴롭혔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남들보다 내가 가진 뛰어난 점은 과연 무엇일까?’ 평범한 외모, 평범한 두뇌, 평범한 가정환경…… 당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지독히도 평범한 내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아주 우연히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장 영광스러웠던 날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시 단위 타자경진대회에 참가하여 1등을 수상했던 적이었는데 문득 이때의 내 모습이 그려졌다. 단상 위에 올라가 전교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교장선생님께 상장과 상품을 받던 내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참 모질게도 지루했던 ‘자아’라는 이름의 긴 터널의 끝이 보임과 동시에 달콤했던 ‘최고’의 순간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는 희망도 싹트기 시작했다.

내 고민 해결의 키워드는 단연 ‘타자’였다. 이 한 조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이라는 퍼즐 조각에 끼워 맞추기는 해야겠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신반의했던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에서 ‘컴퓨터속기’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과 또 그 자격증의 장래성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아, 산삼을 캔 심마니의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까? ‘속기’라는 두 글자가 나에게 빛이요,

소금이요, 생명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성이나 비가 났던지라 ‘고수입 보장’, ‘100% 취직’ 등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랬기에 속기를 시작하는 데 망설임이 덜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

(속기를 향한 적사관이 시작되다.)

다행히도 내가 다니던 대학 근방에 조그마한 소리자바 학원이 있어서 쉽게 속기를 배울 수 있는 루트는 확보할 수 있었다. 낯은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두컴컴한 작은 방 안의 무거운 공기와 컴퓨터가 내뿜는 열기가 날 압도했다. 원장 선생님의 친절な 설명을 듣고 나서 생애 처음으로 속기용 키보드와 첫 대면을 했는데 그 기괴한 모습에 처음에는 이게 뭐가 싶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대단한 것을 배우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막 들면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뿌듯함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물밀 듯이 밀려 들어왔다. 2벌식과 달리 세 개의 자판키를 동시에 눌러야 하는 이 어색함(?)이 훗날 내 진로까지 결정해 버릴 줄 누가 알았으랴……

그렇게 한 두어 달 정도 학원을 다녔을까? 생각보다 속기 강의는 단순함 그 자체였다. 자세 교정과 잠깐의 속기 교육을 빼고 나면 자기와의 싸움만이 남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그런 교육 과정이었다. 이러다 보니 속기를 학교 공부와 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시간적·물질적 측면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굳이 학원에 가야 하는 것도 부담이었고, 또 그럴 단계도 지났다고 판단해 결국 나는 학원을 그만두고 독학의 길을 택했다.

독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 닥친 가장 큰 시련은 나태함과 지루함이었다. 신경 써 주는 사람도 없이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언제 끝날지 모를 내 자신과의 긴 싸움에 지쳐 갔고 심지어는 속기에 대한 흥미도 잃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이 원칙 하나만 큼은 지키려고 노력했다, 속기 연습을 길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하자는 나 자신과의 약속. 단 5분일지라도 속기 자판을 만지고, 연습하고, 두드렸다.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결국 이 약속은 3급 자격증 취득을 시작으로 1년, 1년 순차적으로 나를 목표

달성이라는 고지로 이끌었다. 속기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남들에 비해 시간은 3배나 더 걸렸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첫 승리했다는, 인생에 있어 큰 성취 경험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둔다면 그래도 꽤 멋진 결과가 아니었나 싶다.

〈국회가 부른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 이제 다 끝났다는 달콤한 환상은 얼마 못 가 산산조각이 났다. 생각보다 속기 쪽으로의 취업문은 좁았고, 그 길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현실에 지쳐 나 자신이 속기사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과 꿈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것이다.

결국 나는 속기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접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함과 동시에 나는 용돈이라도 벌 목적으로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서 일을 맡아 녹취 및 사이버대학교 강의록을 작성하는 프리랜서로도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속기와의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속기와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속기 자판을 손에서 멀리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속기 실력도 향상되어 중간에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었다. 물론 적지만 내가 직접 용돈도 벌고 말이다.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쯤 되던 해, 국가직과 지방직의 공무원 시험이 모두 종료되고 이렇게 나의 한 해도 저무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 국회 속기직 공고가 떴다. 보니까 필기 과목도 내가 지금껏 준비했던 과목과 비슷하고 작년과 재작년 필기시험 커트라인을 보니 그리 높지도 않고 해서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직 시험을 접수했다.

내 생각대로 무난하게 1차는 합격했지만 문제는 2차였다. 실기시험의 비중이 더 큰 국회 속기직의 특성상 뭔가 확실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1차 필기시험이 종료하자마자 2차 실기시험에 온 힘을 집중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보다 10배, 100배는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국회직 실기시험은 1급 시험보다도 그 난도가 높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10시간 넘게 대략 2주 동안 실기시험 준비를 했던 것 같다. 눈 뜨면 컴퓨터를 켜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연습을 했으니 정말 속된 말로 토 나올 정도로 강도 높게 연습했다. 이것 아니면 끝난다는 그 절박함과 함께 말이다. 나의 이 지독함에 하늘도 감동했는지—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아슬아슬한 점수로 겨우 2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고 운 좋게 3차 면접시험까지 합격하여 속기사 중 가장 최고의 자리라 할 수 있는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우연인 줄 알았던 때 순간의 사소한 선택의 결과와 꾸준함이 국회 속기사가 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된 것 같다. 노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라질 수도 있었던 작은 꿈을 현실이 되게 해 주었다.

예전에 책에서 본 문구가 떠오른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온 우주가 돕는다는 그 말. 이 말을 체험할 수 있었음에 나는 지금도 감사함을 느낀다.



이제는 아름다운 국악예술인으로 살려 합니다.

“경기민요와 한국전통무용으로 재능기부 하며 속기사에서 국악예술인으로 인생 1막2장 시작합니다”

이 승 희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봉사활동, 보는 이도 하는 이도 즐거워

나는 현재의 내 나이를 사랑합니다. 인생의 어둠과 빛이 녹아들어 내 나이의 빛깔로 떠오르는 60이 다 되어 가는 내 나이를 사랑합니다.

1976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속기사양성소에 19세 솜털 보송보송한 나이에 입소하면서 국회 그리고 속기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힘겨운 국회속기사양성소 시절을 거쳐 국회 속기사로 대한민국 국회 속기과에 입사하여 강산 이 서너 번 변할 만큼 세월이 흐른 2013년 지금 의정기록과에서 국회 의정회의록 편집 업무를 하며 속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적은 보수도 낮은 직책도 부족한 근무 환경도 개의치 않고 고마움을 느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고마운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잘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게 되는 것은 내가 세속적이라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부모님만 찾던 아이도 성장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시하거나 귀찮게 여기다가 결국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느끼고 후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모든 것이 늘 곁에 그렇게 있으리라는 착각,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할 권리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계약서를 쓰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내 심장이 70년 이상 아무 탈 없이 뛰어 주리란 보장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조차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사고로 몸을 크게 다쳐 수술 받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후회가 덜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저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여 주고 저의 인생 1막2장을 기쁘게 채워 나갈 수 있게 할 에너지의 원천임을 확신합니다.

국회 속기사로 37년이라는 시간을 근무하면서 속기사의 자존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무척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치열한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은 누구나 다 겪게 되겠지만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비유와 같이 저도 아주 강도 높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신이 지쳐 결국 건강을 잃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쓰던 중 만나게 된 것이 우리가락이었습니다. (20년 전 당시는 국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음. 특히 공무원 사회는 더욱 심했음) 장구 장단에 맞춰 민요를 하며 호흡을 가다듬게 되었고, 내재되어 있던 불만 분노 원망을 북을 두드리며 팽과리를 치며 흘날려버리다 보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심신의 균형을 되찾게 되니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몸으로 호흡하는 법을 익히고 감정을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표현하게 하는 우리의 전통가락은 참으로 신묘한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람을 자연과 함께 호흡하게 만들어 자연과 동화하게 하며 평화를 보너스로 선물한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2011년 전국국악예술경연대회(한국전통무용 부문) 대상
작 품 : 김진걸류 부채산조춤
안 무 : 최 방 자
무 용 : 이 승 희

건강상 이유로, 취미로 시작한 우리가락에 매료되어 15년 이상 꾸준히 민요와 한국무용을 익히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장애우 시설이나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에 국악 공연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되고 2010년 전국국악예술경연대회에서 경기민요로 소리부문 대상 수상, 2011년 전국국악예술경연대회에서 산조춤으로 전통무용부문 대상 수상, 2011년 아리랑예술제에서 우리나라

아리랑을 여러 분야에 교육·보급한 공로로 아리랑예술 대상 수상, 2011년 민족문화예술사회봉사 대상 수상, 2012년에는 민족문화예술인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전수자로 등록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이었는데 참으로 큰 영광의 시간으로 되돌려 받은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통증은 있지만 가치 있는 시간이기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초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월이 지나 지금은 전통예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높아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전통예술을 부양하는 정책을 많이 합니다. 국악 관련 경연대회도 많이 열리고 지구촌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며 경쟁력 있다고 하여 국악예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기분 좋은 변화를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전수자 등록(2012년)

나의 생활철학이라고 할까 신조는 '다른 사람의 속도에 신경 쓰지 말자'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진 능력을 잘 나누어서 알맞은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에너지 넘치고 더욱 강건해질 수 있고 내일에 대해 탐구해야 하는 나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오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뒤에 알게 되는 일상의 풍요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운이 좋아 속기를 만났고, 운이 좋아 속기사가 되어 국회에 입사하였고, 운이 좋아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 주신 고마우신 선배님을 만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운 마음으로 위로를 주신 후배님들을 만나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날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 1막1장은 속기사로 치열하게 살았다면 이제 인생 1막2장은 국악예술인으로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축복받음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하고 묻는다면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와 인연 맺은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당신을 친구함에 있어 불꽃처럼 타오르는 꽃잎이기보다는 계절 내내 변함없는 줄기이고 싶습니다.” “화사하게 달아 올랐다가 가슴 아프게 지어버리고 마는 봄 한철 걱정이기보다는 사계절 내내 가슴을 흔드는 그런 여운이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담금질하여 주신 속기사 선배님들, 후배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경 2011년 제5회 민족문화예술대상 및 제1회 사회봉사대상 시상식
문화체육관광부인가 제104호 외교통상부등록 제27호 일 시 : 2011년 3월 20일 장 소 : 서울아실프라자(아르름)
주최 : (사)한국민속예술인협회, 국악교직원문사 주관 : 세계예술교류협회, 국악예술인문사 후원 : 국악예술인연합회, 국제문화예술진흥회, 서울총회, 일동화상실



구분 : 경기민요

이 승 희

속기사로서 나를 말하다

신 대 현

(전) 안성시의회 의사팀 근무

(현) 안성시 보개면사무소 민원팀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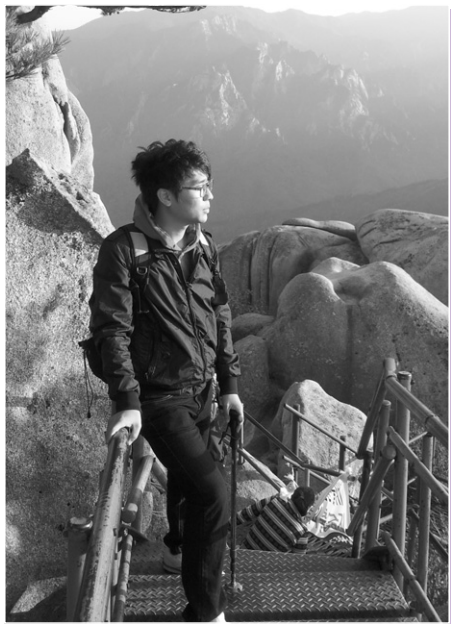
먼저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속기사로서 걸어온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잠시나마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싶어서이다.

내가 '속기사'라는 단어를 안 지는 10여 년이 넘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속기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것은 7년여 정도 되는 것 같다. 처음 속기사라는 것을 알고 지방의회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있지만 오늘은 지방의회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려 한다.

생각해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내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속기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내 자신이 스스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처음 2년여간은 서울에서 속기와 관련된 여러 곳에서 일을 하며 기본적인 업무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그러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의 고향, 그곳 지방의회에서 속기사 채용공고가 나는 좋은 기회가 생겼고 당당히 합격하여 속기사로서는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인생의 한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렇게 지방의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나는 설렘도 있었지만 무언가 모르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의회라는 곳이 속기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의전활동 또한 중요한 업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국회라는 곳이 입법 및 재정, 국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라면 지방의회는 법률보다는 범위가 작은 조례안 및 시의 재정, 시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의원들을 보좌하는 업무도 속기사로서 회의록 작성뿐만 아니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비회기 중에서도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늘 그렇게 보좌의 역할까지 소화해야만 하는 곳이었기에 의회의 속기사로서 하나하나 배워 가며 일을 시작하여야만 했다.

그렇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말로 속기사 본연의 능력을 120% 발휘해야 하는

임시회를 맞게 되었다. 해가 바뀌고 처음 개최되는 회기인터라 조례안 및 집행부 업무보고가 주를 이루었다. 두근두근 긴장되는 마음으로 상임위원회의 속기사석에 앉아 속기를 하는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비슷한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속기기계 위의 내 손가락은 브레이크댄스를 추듯 멋대로 춤을 추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낯선 행정용 어들과 돌발 발언들로 내 머릿속은 캄캄한 어둠 속이었지만 속기를 하는 내 마음만큼은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회의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국회 같은 경우나 규모가 큰 의회 같은 경우 속기사들이 충분히 교대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의회의 경우는 혼자서 1시간에서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 속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속기를 할 때면 물론 나오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록을 하겠지만 인간의 집중력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한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현대사회의 문물인 mp3의 녹음 기능이 내가 기록한 회의록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기에 함께 가는 동료같이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일을 하며 무사히 회기를 마치게 되었고, 내 어깨는 마치 누가 앉아 있는 듯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을 느끼는 것도 잠시일 뿐 회기가 끝났다고 해서 속기사로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일이든 처음도 중요하지만 ‘유종지미’라는 말이 있듯이 끝까지 잘하여 일의 결과가 훌륭하게 됨을 이르는 말로 교정 및 발간 작업까지 잘 마무리해야 속기사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첫 임시회의 회의록 발간까지 마치고 나니 지방의회라 해서 참으로 녹록지만은 않다는 사실과 함께 무언가 모를 뿌듯함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5년여 동안 의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내가 작성한 회의록들이 가끔은 검찰청에 들어가기도 했고, 가끔은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들 간 시정을 펼침에 있어 본인들이 했던 말들의 시시비비가 내가 기록한 단어 하나하나에 의해 가려질 때는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끼기도 했었다.

속기사라 하면 의회의 꽃이라 불린다.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까? 과거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발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기록한 사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의 속기사고 나이기에 스스로 자랑스러울 때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의회의 속기사로서가 아니라 5년여 동안 의회의 속기사로서 일을 하며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행정직 공무원으로 직렬 전환을 했고, 처음으로 서는 낯선 길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속기사로서의 삶이 싫어서가 아니다. 누구나 각기 다른 삶이 있을 것이고, 잠시 지친 나에게 찾아온 또 다른 기회를 놓치기 싫었을 뿐이다. 만약 속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내 인생을 말할 때 빠져서는 안 될 단어 ‘속기사’. 누군가도 이야기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마침표란 없다, 그저 쉼표만 있을 뿐. 나도 그 쉼표를 찍고 다시 걸어가는 것일 뿐이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역사를 기록하는 속기사님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다.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속기사님들이 있기에 역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라고 말이다.



송별회 스케치



이 한 경

어느덧 저보다 위 선배님들이 아래 후배들의 숫자보다는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는 작별의 시간이 오겠지요.

지난해 12월 13일 김은숙 선배님과 안순희 선배님을 떠나보내는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울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송별회가 있던 전날도 눈이 워낙 많이 내렸더랬습니다. 김 선배님께서도 울산에서 9시 30분에 일찌감치 출발하셨지만 눈이 많이 온 탓에 제설차가 도로정비하느라 밀리고 또 수도권은 막히고 해서 예정시간인 오후 5시를 훌쩍 넘겨 도착하셨습니다.

간담회 충무를 맡은 정숙 씨와 서기를 맡은 최정민 씨는 다과를 준비하러 마트에 갔다 오던 중 차가 펑크가 나서 정숙 씨는 긴급출동을 불러 타이어 4개를 몽땅 갈아야 하는 사태까지 겪어야 했고, 정민 씨는 그 바람에 한 손에는 꽃풍선을, 다른 손에는 김밥 음료수 등 준비물을 들고 택시에 의지해 뛰어와야 했습니다.

그 사이 류태문 씨는 작은 식당에서 후배들과 함께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연두빛이 도는 현수막을 걸고 탁자를 잘 정리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거기에 초록색과 흰색, 오렌지색으로 어우러진 꽃풍선을 달고 다



과 등을 차려 놓으니 후배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훌륭한 송별회장이 되었습니다. 참 수고가 많았지만 파스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경식 과장님께서서는 ‘회자정리’로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헤어짐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별의 아쉬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헤어져도 또다시 만날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손재옥 과장님께서서는 김은숙 선배님의 꽃다운 나이의 입사시절 명석하셨음을, 안순희 선배님의 변함없는 성실함을 말씀하시는군요.

이어 어여쁜 후배들의 선배님들을 보내드리는 송사가 있었습니다.
이미정 씨가 선배님들을 추억하는 마음을 읽습니다.

“오늘 선배님들 송별식 고별사를 맡으며 새삼스레 제가 입사하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선배님들께서 예전에는 월급을 통장이 아닌 봉투로 받으며 가불도 했고 여직원보다 남자직원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 여자는 결혼할 때 퇴직한다는 각서를 썼었다는 이야기, 12시 통금이 있던 시절 밤늦게 끝나면 손등에 도장을 찍고 퇴근하셨다는 이야기 등 태평로 시절 이야기를 무척지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들었었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셨던 거지요. 지금 후배들은 먼 옛날이야기겠지만요.

김은숙 선배님!

제가 새내기일 때 복직하셨는데, 미국에서 살다 오셔서 영어를 잘하신다고 들어서인지 키도 크시고 약간 외국사람 분위기나 나는 듯해서 멋있었던 선배님! 근데 제가 선배님 영어는 못 들어봤네요.

후배에게도 항상 존대를 해 주셔서 몸 둘 바 모르면서도 감사했었습니다. 한 공간 있었는데도 한 번도 같이 근무를 못 해 봐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왜 예전에는 그렇게 선배님들이 항상 어렵기만 했던지, 이제 저도 선배님들이 후배들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나이가 되니 선배님들께서 떠나시네요. 좀 더 일찍 선배님들께 가까이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혹 서운한 마음이 계셨다면 선배님들이 어렵고 대하기 부끄러워서 잘 표현 못 해서 그랬던 것이니 너그라이 용서해 주세요.

안순희 선배님!

항상 조용하고 우아하신 자태로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우리 선배님, 제가 뒤늦게 결혼해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무척 해매던 시절 가끔 차 한잔 하시자며 저보다 훨씬 고단한 시절을 넘기신 선배로서 참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또 백종인 씨가 뒤에 동기인 오빠들의 호위를 받듯이 빙 둘러선 가운데 서서 새내기들의 마음이 담긴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나뭇잎이 지는 게 당연하듯 헤어짐도 당연한 이치일 텐데 차마 잘 가시라 말하지 못하는 이 아쉬움은 어찌하겠습니까?

입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밥도 사 주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먼저 아는 척해 주시면서 ‘김은숙이에요’ ‘안순희예요’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먼저 알려 주시던 그 배려의 마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훌쩍 넘으면 오래된 농익은 포도주처럼 뽀송 깊이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십여 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신 선배님들의 업무에 대한 신념과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가슴으로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햇살 좋은 날이 아닐지라도 가시는 길이 굽디고운 맘을 깔아 가벼우실 거라 믿으니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하다 말하기 전 버드나무 가지 맘속에 심어 드립니다. 어딜 가시든지 우리의 연은 뿌리를 내려 또다시 나무를 만들 것이니 안타까운 눈물에 젖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녕하시라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은숙 선배님과 안순희 선배님 두 분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의정기록과 가족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송별사에 갈음하며 석별의 정을 접을까 합니다.

선배님,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둘러섰던 오빠들이 백종인 씨와 같이 그냥 내려가
자 모두 웃습니다.

김 선배님께서는 ‘우리의 직장이 아주 행복하고 따
뜻한 곳’이라는 말씀을, 안 선배님께서는 ‘항상 우리
에게 축복을 빌며’ 성경의 시편을 읽어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정겨움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은 직원들과 선배님들의 기념촬영으로 마무
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3월 8일, 홍기표 선배님의 송별회
를 해야 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명예퇴직을 하시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배님은 번잡스러운 것은 싫다셨습니다. 마침 신
입직원들이 들어온 뒤여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정숙 씨와 정민 씨 그리고 태문 씨가 이번에는 여직원
실을 극장식 송별회장으로 멋지게 바꾸어 놓았군요.

듬직한 후배인 **김정아** 씨가 선배님을 보내는 후배
들의 심정을 대신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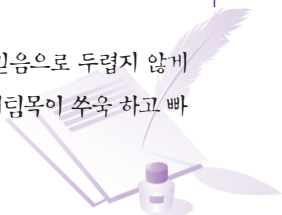


“저는 홍기표라는 이름 석 자를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장인, 등대지기, 버림목 등입니다.

속기와 회의록에 그 누구보다 강렬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생을 걸어오신 선배님, 회의록이 그
저 단순한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라 속기사의 열과 혼이 담겨져 나오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로매진하는 장인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철쭉같이 어두운 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들을 인도해 주는 등대지기처럼 서투르고 어수룩한 저희
후배들이 막막하고 힘겨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답을 내 주시고 방법을 알려 주셨던 선배님이 계셨기
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렵지않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예겐 홍 선배님이 계시니까’라는 믿음으로 두렵지 않게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있어서 홍 선배님의 떠나심은 발밑을 든든하게 받쳐 주던 버림목이 쭈욱 하고 빠
져나가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직 선배님의 뒤를 이을 만한 든든한 재목으로 성장하지 못한 저희들이기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었습니다. 선배님 계실 때에 좀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자책도 함께해 봅니다.

사람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다는 말이 있던가요. 누구보다 속기와 회의록을 사랑하셨던 선배님이시기
에 이 쓸쓸하고 삭막한 계절에 저희 곁을 떠나시는 선배님이 많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의 떠나심에 가슴 아리고 헛헛해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의 평생 살아오신
모습처럼 속기와 회의록을 사랑하고 그 원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후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이 뿌리신 한 알의 밀알이 저희들의 가슴속에 뿌리내려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잊
지 말아 주세요.

선배님, 참 잘 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곁을 떠나 새롭게 시작하실 인생 2막의 여정도 열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
시리라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홍 선배님이 이어 하시는 말씀은 옛날 80년대 체육대회에서 속기창안자 강준원 선생님의 말씀
을 전하십니다.

“속기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속기를 사랑해야 한다. 나
라를 사랑하고 속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국어공부를 하는
것이다. 국어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문법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우리 문법에 눈을 뜨게 되면 속기에 대한 시야가
달라질 것이다. 속기에 대한 시야가 달라지게 되면 진정
한 속기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직업뿐만 아니고 속기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직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로 귀여운(?) 막내 대접을 받는 새내기들 박우찬 씨, 예산
해 씨, 김진주 씨가 ‘짜라빠빠’ 라는 음악에 맞춰 개다리춤
과 골반춤이 섞인 댄스로 선배님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선배님을 떠나보내는 분위기와 새로 들어온 후배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교차되는 가운데 흥 선배님을 처음 뵈고 손을 잡아주던 날을 떠올리던 김진주 씨는 만나자 이별하는 자리에서 결국 울음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 후배를 보듬는 선배님의 눈길과 손길에서 깊은 애정이 보이는군요. 우리는 모두 숙연해지며 가슴 한구석이 뻥해집니다.

동기인 손재옥 과장님, 김란희 과장님, 그리고 김학순 선배님께서는 거의 사십여 년을 함께한 동료에게 입을 모아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선배님이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홍기표 선배님은 그동안 우리 후배 속기사들에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시고 우리말이 바로 쓰이기를 염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많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늘 우리 후배들에게 올바른

속기사의 길을 걷는 지표가 되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시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배님들의 마음을 받들어 우리 국회의 속기록이 후대에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가치를 담은 회의록으로 남겨지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배님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모두 화이팅!



제46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는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총회는 김덕진 총무이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성원 보고, 그리고 2012년 6월 1일 개최된 제20회 속기경기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0회 속기경기대회 입상자는 금상 백종인 회원, 은상 정현중 회원, 동상 양태영 회원으로 시상은 신희동 부회장이 해주셨다.

이후 회의에서는 회장님을 대신해서 신희동 부회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경식 의장대리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김덕진 총무이사의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12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와 손석련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

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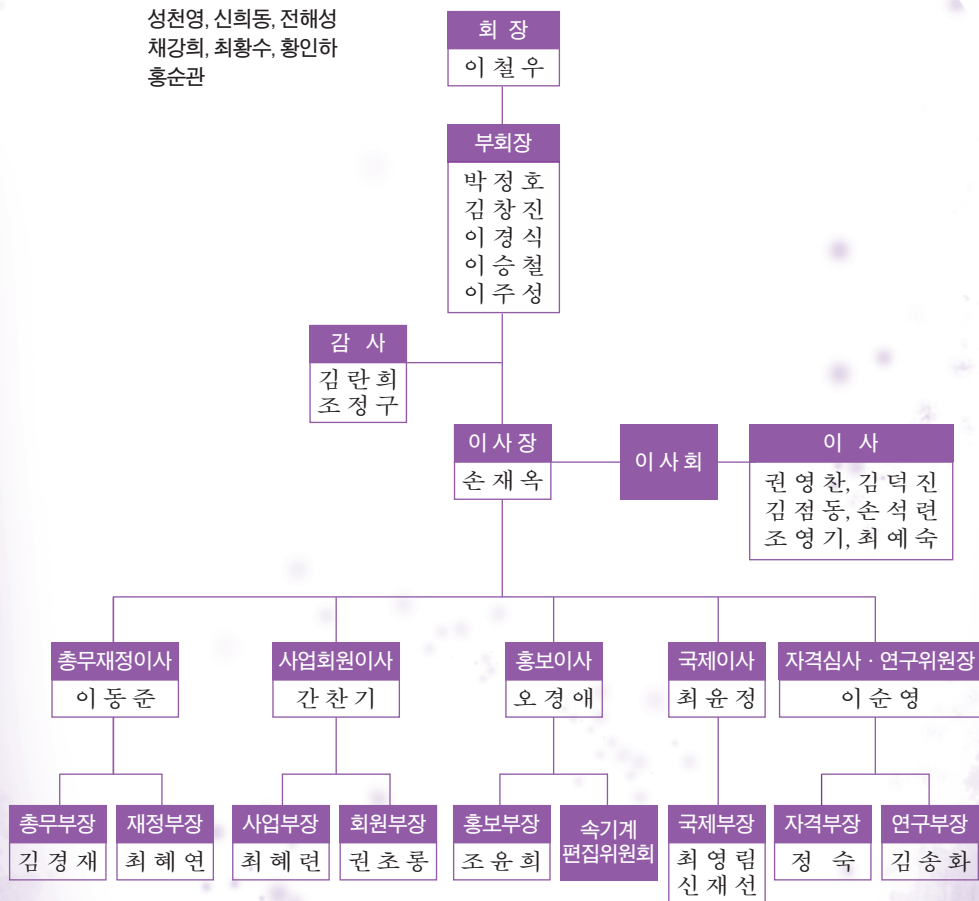
세 번째 부의안건인 임원선임의 건은 임기 만료에 의한 새로운 임원 선임으로 이사 겸 회장에 이철우 회장님, 부회장에 박정호·김창진·이경식·이승철·이주성 회원, 이사장에 손재욱 회원, 이사에 간찬기·권영찬·김덕진·김점동·손석련·오경애·이동준·이순영·조영기·최예숙·최윤정 회원, 감사에 김란희·조정구 회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상 3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46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협회 임원 및 기구표

고 문 : 권용태, 송기철, 안인영
최석모

지도위원 : 고태중, 김기영, 박광택
성천영, 신희동, 전해성
채강희, 최황수, 황인하
홍순관



편집후기

속기인들의 진솔한 얘기들을 찾아 속기계에 담았습니다.

더운 여름날 갈증을 식혀 주는 냉수처럼 이 작은 책이 보는 이의 청량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작품이라 설레임보다는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 고생한 우리 홍보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오 경 애 -

처음에 '협회 홍보부 일 한번 해 보는 건 어때?' 하시는 오경애 이사님의 권유로 열결에 시작하게 된 홍보부 일. 머릿속도 복잡해졌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앞섰지만 어떻게어떻게 해서 '제49호 속기계'라는 책 한 권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사님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지난 홍보부장이었던 박정현 선생의 세심한 조언, 그리고 우리 보물 같은 기자들의 전폭적인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책은 무사히 나올 수 없었겠죠.

홍보부 일을 처음 맡은 제가 원고 부탁 말씀만 드려도 서슴없이 글을 써 주셨던 이 속기계 속에 계신 모든 소중한 분들께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이니까 어떻게 한 권 무사히 내 보기만이라도 하자 했던 게 목표였던 제가 내년엔 그래도 좀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욕심도 생기네요.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바쁘고 행복했고 뿌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 조 윤 희 -

10년째 독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다 기자로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처음 만드는 속기계이기도 하고,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바쁜 임시국회를 보내는 와중에 완성된 속기계라 더욱 마음이 뿌듯합니다.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황 유 진 -

‘글쟁이가 되라’ 내가 첫 글쓰기 수업에서 들은 말이다. 글쓰기 선생님은 저 말로 나에게 주문을 걸었다. 그 덕분에 선생님의 지도로 나는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글문을 썼다.

이런 경험 때문이었을까? 홍보부 기자로 활동해 보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예전의 나라면 원고 청탁을 받으면 바로 도망갔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글쓰기 훈련을 받아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속기계에 글을 실어보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어떤 일이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 이번 속기계 작업을 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뻗속까지 깊게 깨달았다. 아직은 조출한 글 솜씨였지만 홍보부 식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일이 잘 마무리되어 무엇보다 다행이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조용히 홍보부 기자들을 지도해 주신 오경애 홍보이사님, 꼼꼼하면서도 배려심 있게 편집을 총괄해 준 조윤희 선배님,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 준 황유진 선배님, 열심히 활동해 준 권오정 씨, 유준호 씨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 이 정 윤 -

기자로서 처음 속기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니 많은 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다 읽어보지도 못했던 속기계 책자가 이제는 예쁜 배경 하나만 봐도 어울릴지 생각이 되어 지네요.

정말 미약한 힘만 보탤던 49회인 것 같습니다. 50회 땀 더 알차고 재밌는 속기계가 만들어지도록 큰 힘을 보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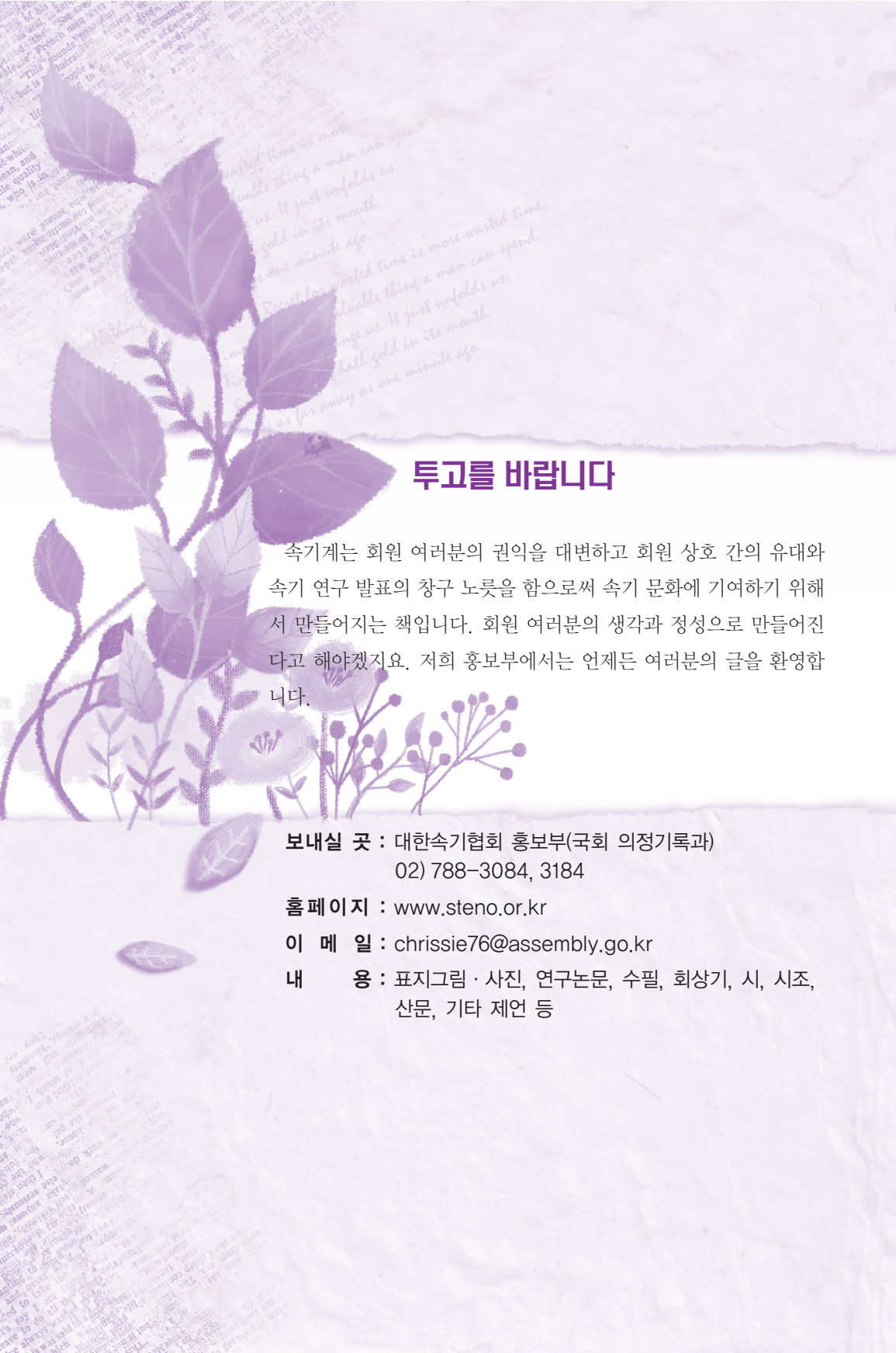
- 권 오 정 -

‘차려 놓은 밥상에 손가락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어느 영화배우의 수상 소감이 참 멋진 표현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협회 이사진이 바뀐 후 첫 속기계라 부담도 크고 걱정도 됐지만 홍보이사님과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부원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다듬어져 가는 속기계의 페이지를 보면서 설레고 뿌듯했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는 속기사로서의 책임감과 50호, 51호 더해지는 속기계 페이지의 책임감도 함께 채워 가겠습니다.

- 유 준 호 -



투고를 바랍니다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대한속기협회 홍보부(국회 의정기록과)
02) 788-3084, 3184

홈페이지 : www.steno.or.kr

이 메 일 : chrissie76@assembly.go.kr

내 용 : 표지그림 · 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비 납부 안내

회 비 :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내실 곳

회 비 : 농협 302-0660-8195-21 최혜연(협회 재정부장)

협회발전기금 :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속기사는

들을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TEL. 02)788-2371~6



제49호 **속기계**

발행 2013년 5월

발행인 이철우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편집인 오경애

기자 조윤희, 황유진, 이정윤, 권오정, 유준호

디자인·인쇄 동국상사 (02)362-3851

전화 02)788-2371~6

팩스 02)788-3386, 338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홈페이지 <http://www.steno.or.kr>

비매품

